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 충남의 태실 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꿈꾸다 -

의 정 토 론 회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목 차

Ⅰ. 토론회 개요 및 세부계획 ····· 1

Ⅱ. [발 제]

충남지역 태실의 현황과 세계유산화를 위한 방향 ····· 3

Ⅲ. [토 론]

1. “태실” 충남의 유산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 51

2. 태실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경험 ····· 57

3. 충청남도 조선왕실 태실의 보존관리 방향성 ····· 61

4. 충남지역 태실 연구 및 홍보 활성화 방안 ····· 65

5. 태실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방향 ····· 71

- 충남의 태실 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꿈꾸다 -

의 정 토 론 회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8. 25(금) 14:00~16:00

○ 장 소 :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

○ 주 제 : 충남의 태실 문화 세계유산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관 : 충청남도의회, 굿모닝충청

□ 세부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	5′	내빈소개·개회사 및 축사	좌 장 ※ 개회식 후 기념촬영 이후 토론회 진행
< 토 론 회 >			※ 진행 : 좌 장
14:10~14:40	30′	주 제 발 표	발제자
14:40~15:20	40′	지 정 토 론	토론자 5명(각 8분)
15:20~15:40	20′	자 유 토 론	발제자, 토론자
15:40~15:55	15′	청 중 토 론	참여자 전체
15:55~16:00	5′	정 리 및 폐 회	좌 장

발 제

충남지역 태실의 현황과 세계유산화를 위한 방향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회 정

충남지역 태실의 현황과 세계유산화를 위한 방향

김회정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Ⅰ. 시작하기 : 함께 걷는 먼길
Ⅱ. 조선왕실의 안태문화와 가봉태실
Ⅲ. 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충남지역 현황
Ⅳ.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 방향
Ⅴ. 마무리하기 : 충청남도가 해야할 일

Ⅰ. 시작하기

‘태처리 문화’는 지구상 생명체로서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의 첫 단계에서 겪게 되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이다. 비록 문화권 별로 그 표현 방법은 달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손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태처리 문화는 한반도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전래되었으며, 조선왕실은 동양적 사고를 접목시켜 체계화하고 정밀하게 규례화하여 문화로 승화시켰으며, 500여 년간 가봉태실이라는 결정체를 유산으로 남겼다. 가히 가봉태실이 인류 공통의 태처리 문화의 정점이라 할 만 하다 하겠다.

이러한 가치를 가장 먼저 인식한 경북 성주군에서 세종대왕자태실(사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문화재청 전문가들은 단독보다는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등재를 시도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우리 충남지역은 다소 부끄럽지만 2015년 명종대왕 태실에 대한 심화연구를 시작으로 태실에 극소수의 연구자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첫 노력이 보물지정이라는 쾌거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파급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약했으며, 오랜 설득 끝에 충남도 전체에 대한 태실조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성주군이 뿌린 씨앗이 싹을 남몰래 틔우고 자라는 기적적인 과정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충남과 비슷한 시기 경기도도 나름의 노력을 시작하였고, 2022년 드디어 가봉태실을 보유한 지역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2023년 올해 연합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함께 연대하여 세계유산화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이 시점에 충남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의정토론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세계유산등재의 길은 최소한 5~10년이 걸린다. 아니 오랜 노력 끝에 등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단 먼 길이고, 험난한 길이다. 그리고 연속유산이라는 결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해야지 가능한 일이다.

오늘 이 발제는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먼 길을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준비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조선왕실의 안태문화와 가봉태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하고, 충남이 보유한 왕실태실유산 중 가봉태실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 함께 나누고자 한다.

문화유산을 전공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연구하는 어떤 유산이 세계가 함께 그 가치를 인정했다 할 수 있는 세계유산 등재는 매우 의미 있으며 영예로운 일이다. 물론 몇몇 회의론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 평가절하 되었던 우리 문화와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은 분명 몇 몇 소수의 연구자들로만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의회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과 지역사회의 응원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부디 가봉태실이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 서원, 갯벌 등에 이어 충남을 대표하는 세계유산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생명탄생을 상징하는 유산'으로서 현대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등의 여러 극단적 사회문제들에 선조들의 지혜를 나눠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서산 명종대왕 태실 전경(자료출처: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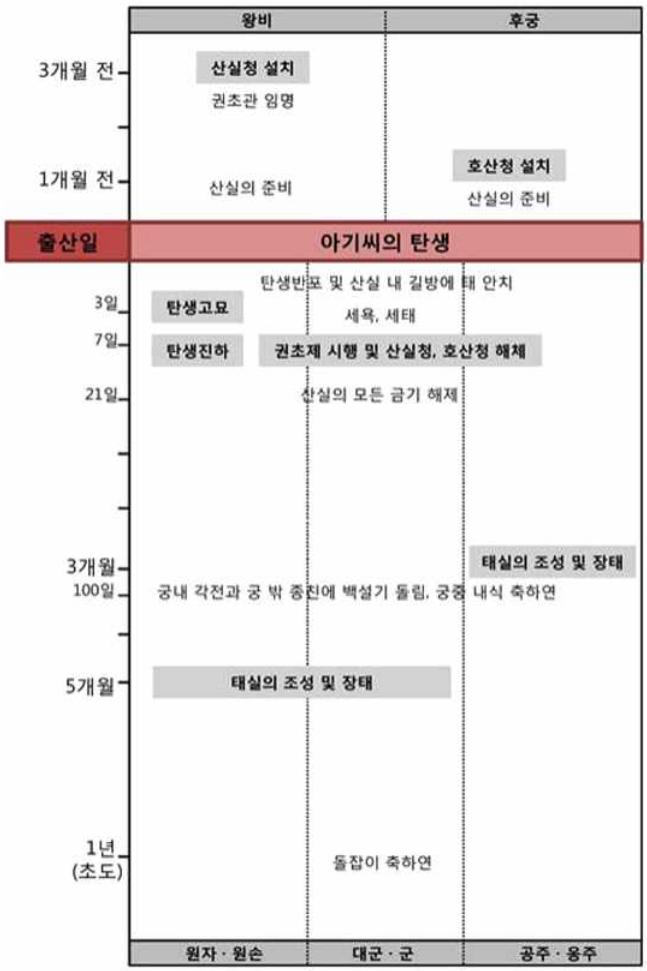
Ⅱ. 조선왕실의 안태문화와 가봉태실

1. 조선왕실의 안태문화

1) 안태의례

한국의 안태문화 또는 장태문화의 기원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진천의 김유신 태실지가 문화유산으로 전승되고 있는 점과 각종 문헌의 기록을 근거로 살펴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특별한 절차를 거쳐 태를 처리하였음은 미루어 살필 수 있다. 조선왕실의 안태문화는 각종 문헌과 태실유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적힌「육안태」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날 때 태로 인해 자라게 되면, 어질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이 모두 태와 관계가 있다고 적혀있다. 또한 태를 매장할 때 성별에 따른 매장시기와 길지에 대해 언급한다.[1] 『문종실록(文宗實錄)』에 적힌「태장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이 날 때는 태로 인해 장성하게 되는데 현우(賢愚)와 성쇠(盛衰)가 모두 태에 매여 있으므로 태를 신중히 여겨야 한다고 언급하여 출생 시기에 따른 태의 명칭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아기의 성별에 따라 안태해야 할 시기를 정하였다.[2]



▲ 조선왕실의 출산과 태실조성 과정

비록 중국기록을 근거로 안태의 예법을 규례화하고 있으나, 이미 조선초기부터 상당부분 고도화 되었고, 이는 왕실의 중요 문화로 자리잡아 500여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기록에서 언급하는 중국의 안태관련 기록들이 정작 중국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선왕조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각종 의궤(儀軌)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기록을 필두로 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이들 기록 중에는 왕실의 의례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함께 남아있는데 태실과 관련된 기록은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3], 『안태의궤(安胎儀軌)』[4],

---

1)『세종실록(世宗實錄)』74권, 세종 18년 8월 8일 신미 1번째 기사.
2)『문종실록(文宗實錄)』3권, 문종 즉위년 9월 8일 기유 4번째 기사.
3) 호산청일기는 후궁의 출산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최숙원방호산청일기(崔淑媛房護産廳日記)』가 남아 있다. 『최숙원방호산청일기』는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가 영조를 비롯한 세 아들을 출산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이다. 산실을 마련하는 과정, 산과(産科) 처방 등을 담고 있다.
4) 의궤는 행사의 전 과정에 대해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행사 보고서이며, 등록은 행정기관에서 산출된 문서를 각 관청의 용도에 맞게 연월일 순서에 따라 등출(謄出)하여 편집한 2차 기록을 말한다. 안태 관련 기록은 표제와 권수제가 다른 경우가 확인되는데, 『원자아기씨 장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는 권수제에 『원자아기씨 안태등록(元子阿只氏 安胎謄錄)』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권수제에는 등록으로, 표제에는 의궤로 되어 있다. (김상환, 「조선왕실의 원자아기 안태의궤 및 태실석물 개보수와 가봉 관련 의궤」, 국립문화재 연구소 편, 2006,『조선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 민속원, pp.12~14 참조)

『태실가봉의궤(胎室加封儀軌)』[5], 『태봉등록(胎峯謄錄)』[6] 등이 남아 있다. 특히 장서각에 소장중인 『대군공주어탄생의 제(大君公主御誕生の制)』에는 출산 전(前) 단계에서부터 출합(出閤)에 이르기까지 총 34항목으로 왕실의 출산과 탄생에 관한 의례를 기록하고 있다. 『대군공주어탄생의 제』를 통해 조선 왕실의 출산과 탄생에 관련된 의례를 상세히 알 수 있다.[7] 왕실의 출산과 탄생, 그리고 태실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모의 신분, 출생한 아이의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실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태(胎)를 오지항아리나 돌항아리에 담아 명산에 묻었다. 이는 『태장경(胎藏經)』이나 『안태서(安胎書)』에서 아이의 현우(賢愚 : 현명함과 어리석음)와 성쇠(盛衰 : 성하고 쇠퇴함)가 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고 정결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에 근거한 것으로 열성조(列聖朝)에서 이미 시행해 온 전례였다. 이것은 풍수와 음양에 바탕을 둔 것으로 왕실의 기복을 바라고,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궁중에서 출산 이후에는 장태개기사(藏胎開基使)나 안태사(安胎使), 상토관(相土官) 등을 파견하여 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장태지로 지정이 되는 것은 고을의 명예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태실이 들어선 고을은 지방 행정상 읍호를 올려주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백성들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해야 했다. 장태지로 결정되어 태봉이 조성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사도 지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문종과 현종, 영조대에는 이를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려 했고 정조 대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중신들의 건의로 인하여 혁파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말기까지 이런 제도를 이어왔다.[8]

2) 태실의 조성

'아기씨태실'은 왕의 정실과 후실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남녀 모든 아기의 태를 태봉산에 장태하고 처음 조성한 태실이다. 아기씨태실의 유물은 태(胎), 태호(胎壺), 동전, 금판(金板)이나 은판(銀板), 홍패(紅牌), 태지석(胎誌石), 태실석함(胎室石函), 아기태실비, 금표비(禁標碑)가 있다. 동전은 태를 넣기 전에 내태호의 바닥 가운데에 넣는데, 글자 면이 위로 향하게 한다. 금판(金板)이나 은판(銀板)은 종이처럼 얇고 작은 금속으로 대부분 직사각형을 하고 있으며, 무늬는 없다. 홍패는 나무로 만들며 직사각형으로 상부 가운데에 구멍을 뚫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를 태호에 담아 장태 되기까지 길한 곳에 보관하는데, 이때 누구의 태인가를 알리기 위해 홍패를 태호에 매단다. 이 목패에 붉은 색을 칠한 것은 악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벽사의 의미로 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홍패에는 태지석처럼 태주에 관한 정보를 적는데, 앞면에는 출생일시와 어머니 및 남·녀 성별을, 뒷면에는 이를 담당한 차지내관과 의관의 이름을 묵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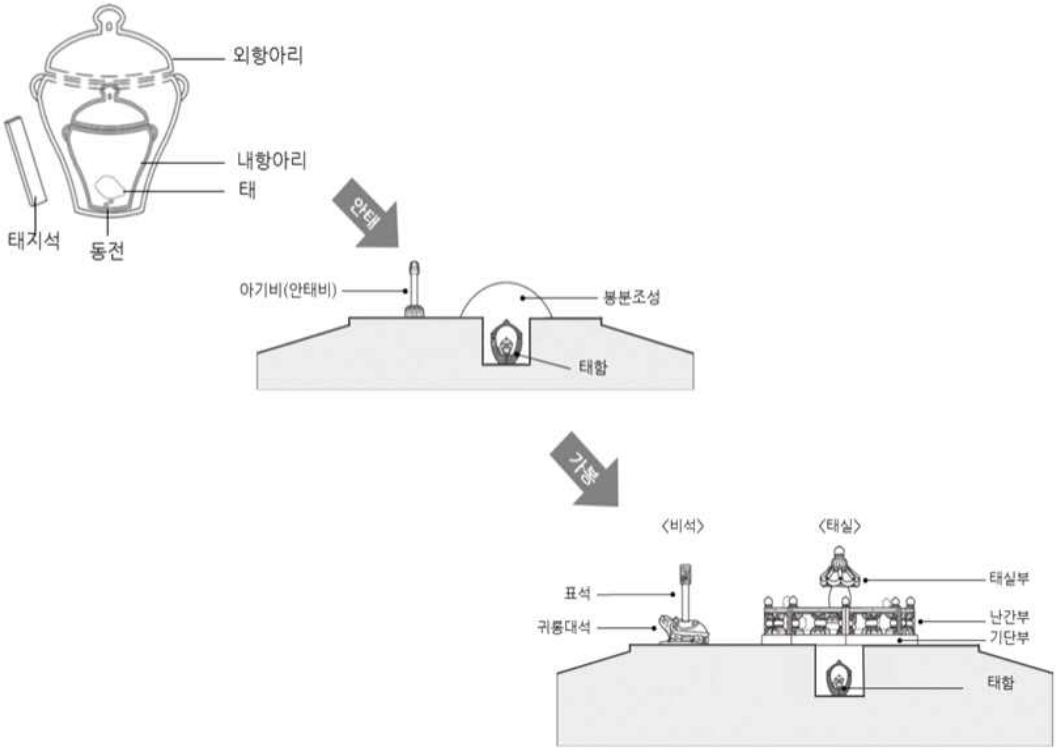
---

5) 태실가봉의궤는 국왕의 태봉에 석물을 가봉한 것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의궤이다.
『정종대왕태실석난간의궤(正宗大王胎室石欄干造儀軌)』, 『순조태실석난간조배의궤(純祖胎室石欄干造排儀軌)』, 『익종대왕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 『성상태실석난간조배의궤(聖上胎室石欄干造排儀軌)』 등이 있다. 『정종대왕태실석난간의궤』의 경우 정조의 묘호가 정종(正宗)에서 정조(正祖)로 바꾸어 추존되기 이전이라 제목에 정종으로 기록되었다. 『성상태실석난간조배의궤』는 헌종 태실의 석난간을 가봉한 것에 대해 기록한 의궤이다.

6) 1643년(인조 21)~1740년(영조 16) 사이 왕실 자손의 안태, 국왕 태실의 가봉 및 수리를 기록한 책이다.

7) 『대군공주어탄생의 제』에 대한 연구는 "김지영, 2007「장서각 소장 대군공주어탄생의 제에 관한 일고찰」『장서각』18"이 있다.

8) 김상환, 2007, 「조선왕실의 안태등록과 홀기」, 『국역 안태등록(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p.17.



▲ 가봉태실의 조성과정

'가봉(加封)태실'은 아기씨태실의 주인공이 임금으로 등극하면 기존의 아기태실에 화려한 석물을 더하여 치장한 태실을 말한다.[9] 가봉태실비는 가봉태실의 주인공과 건립시기를 알리는 표석이며, 귀부와 비신 및 이수로 구성된다. 가봉은 안태와 다르게 석재의 채취와 석물제작이 중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 따라서 백성들이 안태보다 더 많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행사나 흉년 등을 피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가봉 시 기존 태실자리나 새로운 태봉자리에 중앙의 대석 위에 구형의 중동석과 개첨석을 얹어 태실을 만들고 주위에 상석을 깔고 외곽에 팔각 난간석을 둘렀다. 태실에서 1보 가량 떨어진 곳에 귀부와 이수, 비신을 갖춘 가봉 비를 세웠다.[10] 태실 가봉 시 국왕의 비석을 갈아 깨끗하게 하였고, 난간을 설치할 때 예조의 당상관과 감역관이 국왕을 대신하여 직접 감독하였다. 태실가봉의 해당 지방에서는 인력과 물자를 공급했는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과 인근 고을도 같이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태실 가봉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왔다. 완료된 가봉을 보호하기 위해 금표구역과 화소 지역을 정한 후 의궤와 족자를 제작하였다. 족자는 현재 남아있는 태봉도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문 탁본과 태봉도는 왕에게 보고하는 용이기도 하였지만, 비문 내용과 태실의 명당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봉태실은 조선왕실 안태문화의 정수이자 결정체라 할 수 있다.

---

9) 일부 추존왕과 왕비의 가봉태실도 있다.

10) 박대윤, 2011,「조선시대 국왕태봉의 풍수적 특성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쪽. : 아기태실(阿只胎室)은 태봉정상에 토광을 판 후 함신(函身)을 넣고 그 안에 태(胎)항아리와 지석(誌石)을 설치한다. 그리고 개첨석(蓋簷石)을 덮고 흙을 복토한 다음 별도의 석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태실에서 1보(步)가량 떨어진 곳에 태실주인공의 탄생일과 장태한 날짜가 음각된 아기비(阿只碑)만 세운다. 국왕이 되기 전 기존 태실(胎室)자리나 새로운 태봉자리에 부도(浮屠)와 탑비(塔碑)의 양식과 비슷하게 중앙의 대석(臺石)위에 구형(球形)의 중동석(中童石)과 옥개석(屋蓋石)을 얹어 태실을 만든다. 그리고 주위에 상석(裳石)을 깔고 외곽에 팔각난간석(八角欄干石)을 돌리고 태실에서 1보 가량 떨어진 곳에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비신(碑身)을 갖춘 가봉비(加封碑)를 세운다. 가봉비에는 태실의 주인공과 중건 내용을 명기하였다. 가봉(加封)후에는 그 주변의 지리적 형세와 태실의 모습을 묘사한 태봉도를 그리고 이를 왕실에 올려 왕실수장품(王室收藏品)으로 보관하였다.

2. 가봉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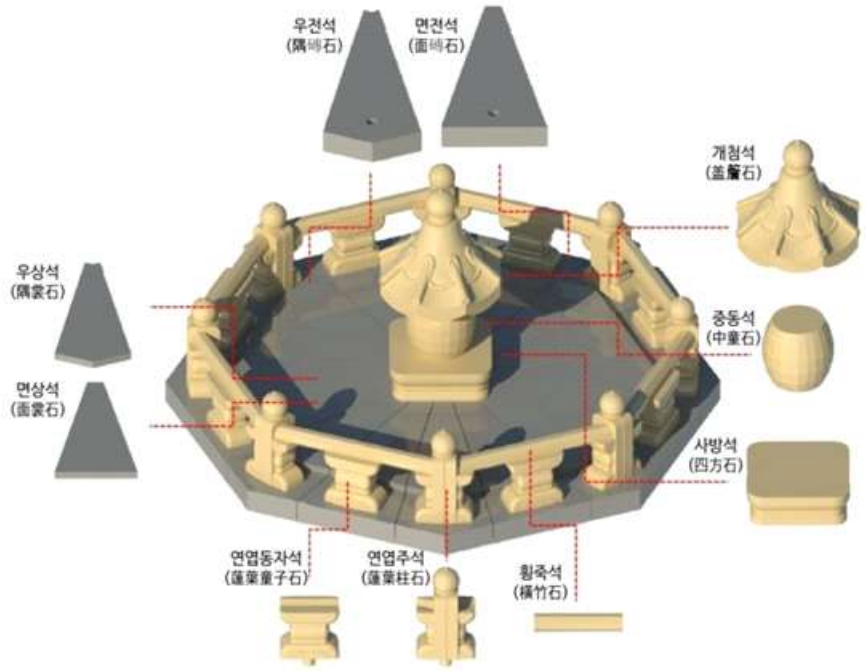
1) 가봉태실의 석물구성

가봉태실은 태실에 승려의 사리탑인 부도와 비슷한 형태의 석물을 만들고, 외곽에 돌로 난간석을 둘렀으며, 태실에 1보 가량 떨어진 곳에 비를 세우는 것이 기본형식이다. 상세한 가봉 태실의 구성은 귀롱대석, 가봉비, 개첨석, 중동석, 사방석, 주석, 동자석, 죽석, 상석, 전석으로 분류한다.

무학대사가 주관해 태조의 태를 금산으로 옮긴 기록을 보았을 때 태조태실의 가봉태실은 무학대사의 부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중앙에 부도를 세우고 둘레를 난간으로 장식한 태실석물의 형태와 구조는 고승의 사리탑 부도와 왕릉의 난간석에서 유사한 형태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주석 사이에 동자석을 세우고 주석에 도란대를 결합한 것이 가봉태실의 형태이다. 따라서 1407년 조성된 무학대사의 부도가 가봉태실의 석물형태에 기본양식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태실 가봉비는 석탑과 마찬가지로 주로 화강암으로 제작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로 단단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왕실의 가봉 태실비에 주로 사용되었던 재료이다.

조선전기의 태실 귀롱대석은 주로 거북이 형상으로 제작을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영조부터는 용의 형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중앙석은 사방석, 중동석, 개첨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앙석은 현존하는 태실석으로 판단하였을 때, 세종까지의 중동석과 사방석은 평면 팔각형이며, 세종부터 중동석이 원구형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인다. 사방석은 중앙석의 받침 역할로 태실 주인의 위엄을 상징하는 역할로 화려한 문양을 많이 새긴다.[11]



▲ 가봉태실의 석물의 명칭과 위치도

11) 윤석인, 2000,「조선왕실의 태실석물에 관한 일연구」,『문화재』33, 국립문화재연구소, 122쪽.

석물구성	내용설명
귀룡대석(龜籠臺石) (=비좌)	▫ 화강암으로 만든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로 비석을 받치는 역할 ▫ 비를 꽂는 귀부와 이를 받치는 지대석(地臺石)으로 구성
가봉비(加封碑)	▫ 비석의 머리는 부분은 용 모양의 이수(螭首)와 비석으로 구성 ▫ 이수는 좌우 대칭의 용 2마리와 이수와 비신(碑身)은 하나의 돌로 구성
개첨석(蓋簷石)	▫ 부도에 올리는 팔각형 지붕과 같은 형태의 돌 ▫ 중동석 위에 올리는 뚜껑 돌
중동석(中童石)	▫ 배가 불룩한 형태의 중심돌 ▫ 윗부분은 개첨석과 연결되는 돌기가 있고, 아랫면은 사방석의 돌기를 끼울 홈이 파여 있음
사방석(四方石)	▫ 중동석의 받침돌로 2단으로 구성 ▫ 가운데가 철(凸)형이며, 중동석 아랫부분에 위치한 홈에 끼워 밀착되게 고정
주석(柱石)	▫ 태실의 난간을 올려놓는 기둥 돌로 태실의 모서리 8곳에 위치함 ▫ 바탕돌인 우전석 위에 놓아 난간석인 죽석을 받치는 기능
동자석(童子石)	▫ 바닥에 까는 면전석 위에 위치하여 죽석을 받치는 역할 ▫ 중간부분은 장고모양으로 연꽃모양이면 연엽주석이라 명명함
죽석(竹石)	▫ 연엽주석과 동자석에 얹는 난간대 역할 ▫ 팔각형의 단면으로 구성된 긴 막대 모양
상석(裳石)	▫ 전석과 사방석 사이의 공간을 메우는 돌 ▫ 가장자리가 일직선이면 면상석(面裳石)이고, 가장자리가 꺾이면 우상석으로 명명
전석(磚石)	▫ 태실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는 석물로 그 위에 동자석과 주석이 놓임

▲ 가봉태실 석물의 부재별 특성

2) 태봉의 관리

『태봉등록』에서 확인되는 태실의 조성에 있어 물리적인 형태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태실이 있는 산봉우리를 의미하는 태봉(胎峯)의 조성은 태실과 태실이 위치한 산봉우리뿐만 아니라 '禁標火巢內'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금표(禁標)구역과 화소(火巢)[12]구역에 이르는 지대를 포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표비(禁標碑)는 일반 백성이 태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태봉의 사방(四方)에 통제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것이다. 태실을 기준으로 일정거리를 정하여 사방에 금표비를 세웠는데, 이때 태실에서부터 금표비까지의 거리는 태의 주인의 지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보수(步數)로 정해져 있었다.[13]

금표지역의 외곽으로 화소(火巢)지역이 존재하였는데, 금표지역과 화소 사이에 땅을 파고 돌을 쌓아서 해자[14]를 만들었다. 화소에는 '火巢'라고 적은 비를 세웠으며, 금표화소 내에서 경작, 가축 방목, 땔나무를 가져가거나 약초, 산나물 등을 캐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만 화소지역과 금표지역이 동일한 공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문헌의 내용 분석만으론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조선왕실은 태봉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태실이 조성되면 수호군(守護軍)의 접거(接居)를 한정시켜 태실을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에서는 3년마다 관리를 파견하여 태실을 점검하고 나무, 돌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태실 보수 지역 안에 무덤이나 농사 등을 금지시켰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철거를 비롯하여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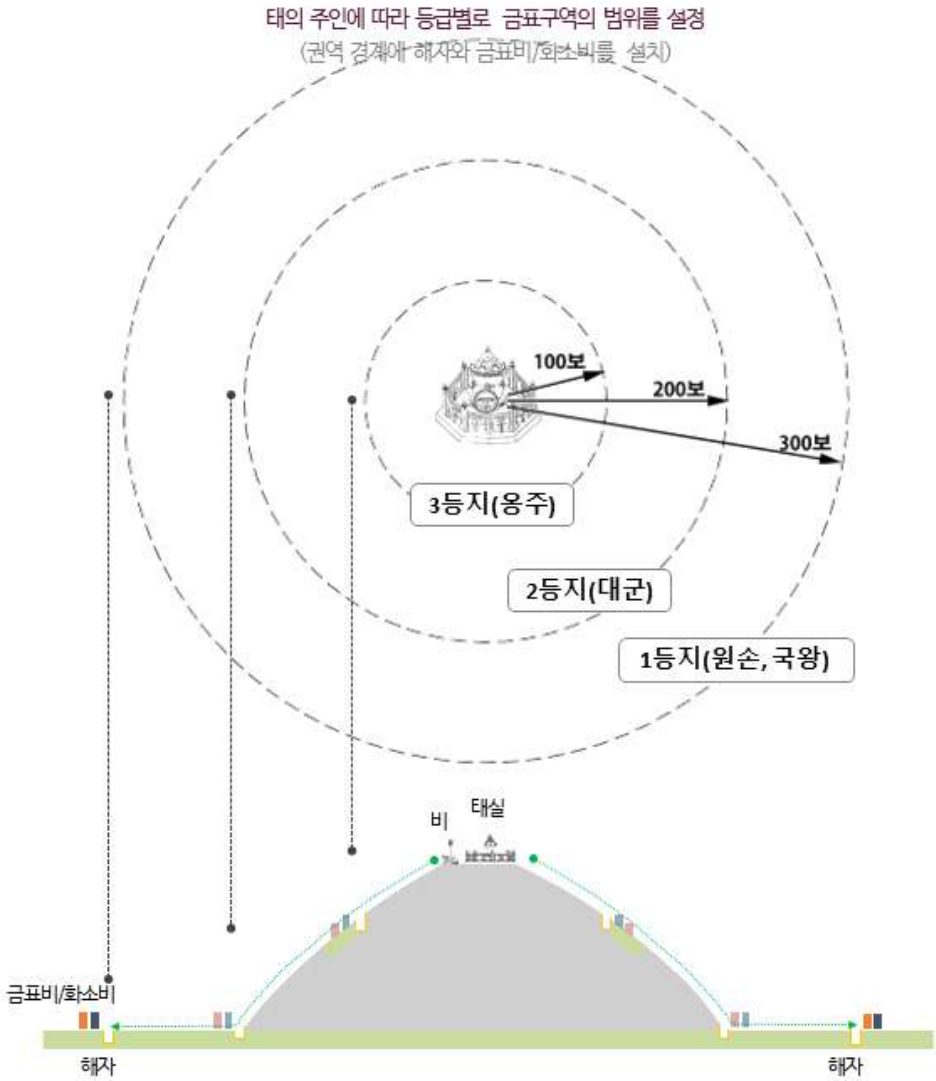
12) 화소(火巢)는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 등의 해자(垓字) 밖에 있는 둘레의 초목을 불살라 버린 곳이다.

13)『태봉등록』서문에 "天啓五年 甲子 大君胎峯謄錄 大王一等胎峯三百步 大君二等胎峯二百步 王子三等胎峯一百步" 기록되어 있다.

14) 해자(垓字)는 능(陵)、원(園)、묘(墓)의 경계로서 내해자(內垓字)와 외해자(外垓字)가 있는데 해자(垓字)안에는 민간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땔나무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자(垓字)는 성(城) 밖을 둘러 판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 형벌을 주어 왕실의 권위를 지킬 수 있게 규정하였다. 또한 중앙관리 뿐만 아니라 해당 고을 수령은 태봉지역을 수시로 순행하며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국왕 태실의 경우만 관리가 엄격하였으며, 그 외 왕후·왕자·왕녀 등 국왕을 제외한 왕실의 태실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조선왕실은 태봉을 보호하기 위해 금표를 300보를 정하고, 대체로 수호하는 시위품관과 군인 8명을 추가하였다. 왕의 자녀들의 태실은 왕위계승여부와 적서여부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1등 태실은 원자와 원손, 2등은 대군과 공주, 3등은 왕자와 옹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의 차이는 태봉으로서의 풍수적 요건이다. 관상감에서 처음 안태를 위한 후보지를 정할 때 복수로 예정지를 올려 낙점을 받는데, 이 때 복수 후보지를 같은 등급의 범위 안에 미리 선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 때 등급에 따라 화소와 금표 영역의 범위가 신분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궤와 등록 기록을 보았을 때, 원손의 경우 원자와의 차이를 알 수 가 없으며, 3등 태실은 후기에 가면 금표 영역을 100보로 제한한 것을 제외하면 따로 수직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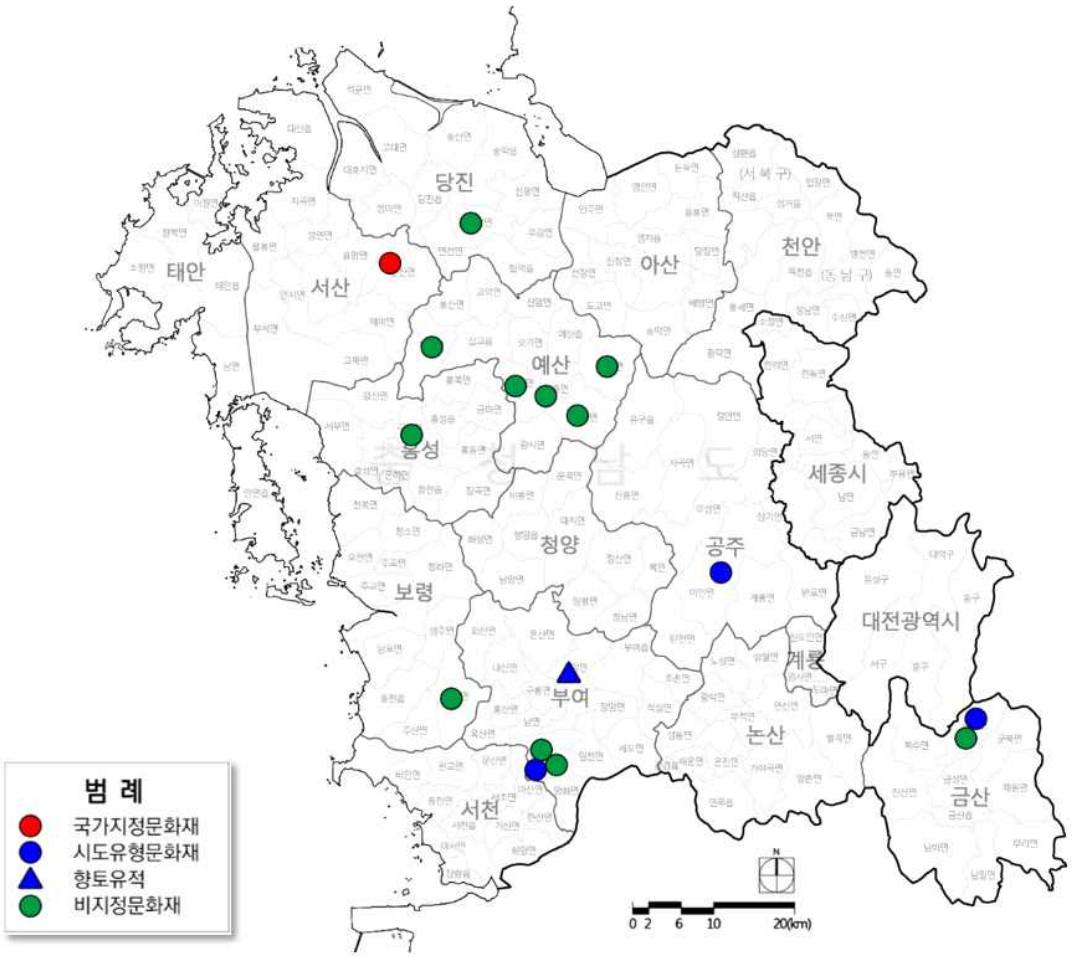
▲ 태실 등급별 보존구역과 시설물 설치 모식도

Ⅲ. 충남지역 조선왕실 태실 문화재 현황

1. 충남지역 조선왕실 태실문화재 분포현황[15)]

1) 조사개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충청남도 내 8개 시·군에 분포한 16개소의 태실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충남지역에는 최근까지 알려진 조선왕실 관련 태실문화재는 가봉태실 7개소, 아기씨태실은 9개소가 위치한다. 예산군이 총 5개소(가봉태실 2개소, 아기씨태실 3개소)로 가장 많은 태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부여군에 4개소(가봉태실 1개소, 아기씨태실 3개소), 금산군에 2개소(가봉태실 1개소, 아기씨태실 1개소),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보령군, 홍성군 등에 각각 1개소씩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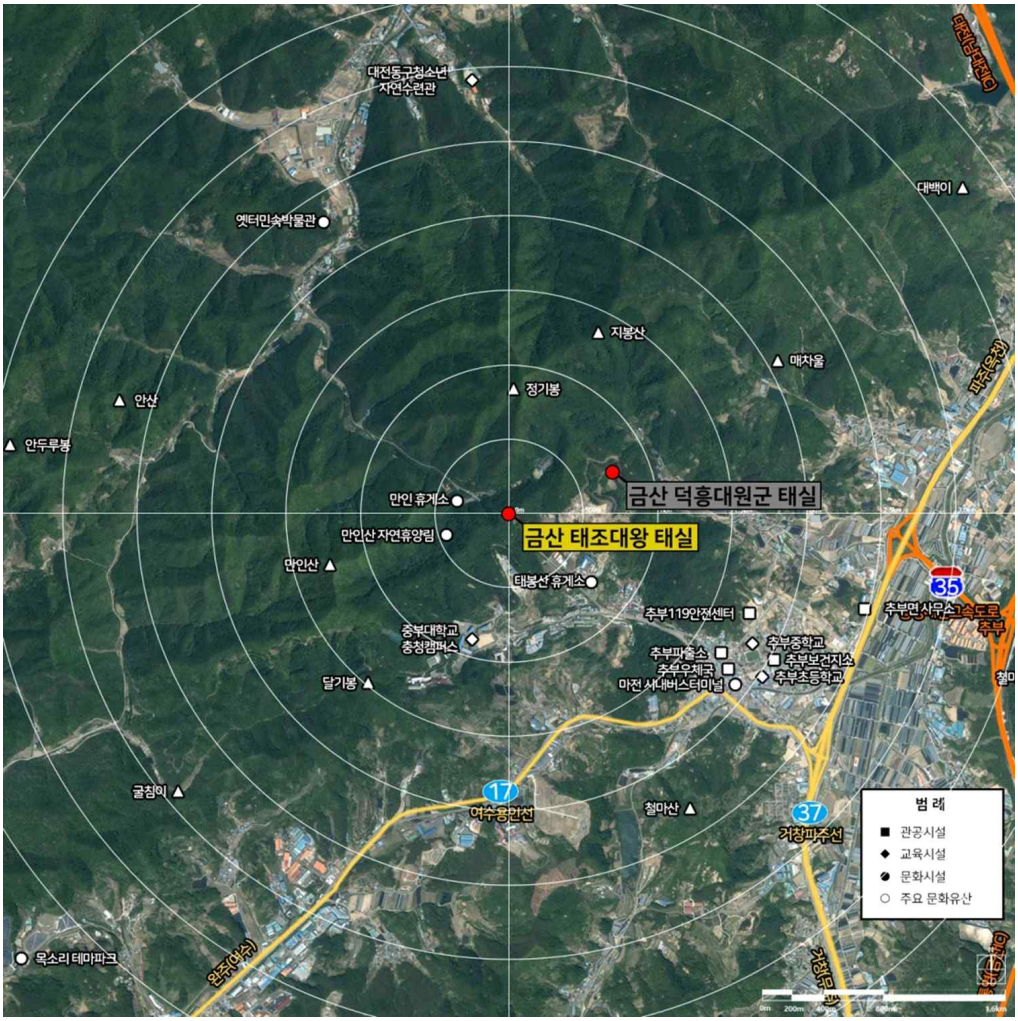
1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02,『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 충남지역 가봉태실

1) 금산 태조대왕 태실

원태봉(태실지)[16]는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4에 위치한다. 원태실지 추정되는 산봉우리의 입지는 풍수지리적으로 전형적인 돌혈에 해당하며, 태봉 또한 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태봉의 정상부로 오르기 위해서는 인접한 한일산업 금산공장이 위치한 곳의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정상부의 부지에는 상석과 망주석 등을 갖춘 민묘가 위치한다. 민묘로 인해 원래의 태실 터를 정확히 비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전 복원된 태실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 1-66과 1-86에 위치한다. 태조대왕 태실은 가봉태실비(표석)과 중앙부 태실이 남아있다.



▲ 태조대왕 태실 원태봉지 위치도

16) 일제강점기인 1928~1930년경 총독부는 이왕직을 통해 전국의 태실들을 서삼릉으로 모아 관리 하고자하는 명목으로 각각의 원태봉지를 훼손하였다. 해방이후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이미 원래의 태봉지는 불하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원래의 태봉지를 '원태봉(지)', '원태실지', '초안지'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 금산 태조대왕 원태봉 전경

▲ 금산 태조대왕 태실지(초안지) 현황

태조대왕 태실의 가봉태실비는 1584년 처음 건립되었으나, 이수를 포함한 비신은 전해지지 않는다. 지대석과 귀부만 1584년 건립 당시의 석물로 추정되며, 비신은 1689년 개수 시 교체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세 부분으로 깨뜨렸던 흔적이 남아있다. 전면의 '태조대왕태실(太祖大王胎室)'과 후면에 '강희이십팔년삼월이십구일중건(康熙二十八年三月二十九日重建)'이라는 음각이 각각 새겨있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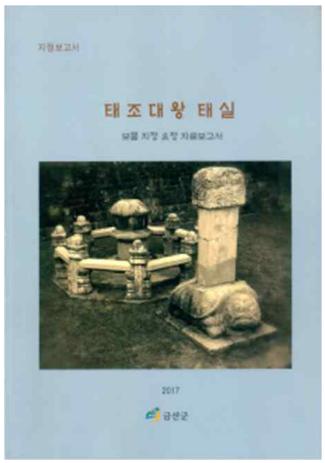
귀롱대석의 귀부 머리는 서쪽을 향해 있고, 몸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각 부분의 조각들이 형식화 되어 있다. 꼬리는 한 갈래로 되어 있는 점 등은 16세기 중후반의 양식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17~18세기의 양식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태봉등록 등의 기록으로 1689년 개수공사 당시 귀롱대석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 귀롱대석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 태조대왕 태실 현황 종합분석도

중앙태실은 1393년에 조성되었으며 이후에 교체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개첨석과 중동석이 하나의 부재로 만들어진 일체형 개첨석의 형태를 지니며, 개첨석 아래의 사방석, 중대성, 개첨석 상부 보주는 유실되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에 의해 서삼릉으로 태항아리와 그 내용물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태실의 원형이 훼손되었으며, 이 당시 불하로 현재는 민묘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1993년 복원 당시, 창경궁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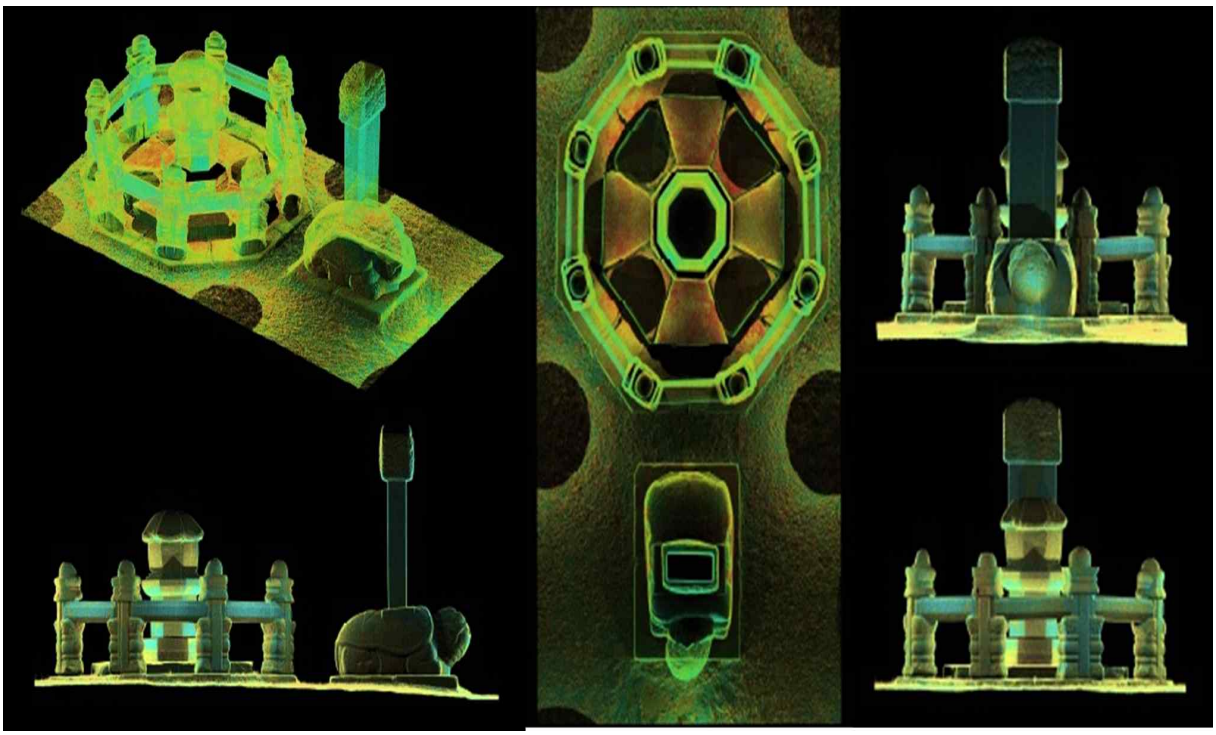
17) 금산군, 2017,『태조대왕 태실 보물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p.15, p.17

던 성종대왕 태실을 참고하여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였다고 전해진다. 태조대왕 태실의 중앙태실은 유사한 사례가 정종대왕 태실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드문 사례이며, 15세기 초 세종 태실까지 적용되었던 고식(古式)으로 볼 수 있다.



석물의 보존현황을 살펴보면, 육안관찰로 발견되는 가봉비의 접합 및 복원 흔적, 귀룡대석 표면의 지의류로 인한 변색, 중앙태실 상석의 낙서 등이 확인된다. 2017년에 발행된 『태조대왕 태실 보물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되어야 할 부분은 중앙 태석 중 개첨석 아래 중대석과 사방석 부분이며, 이는 1993년 복원 당시 충분한 학술 고증과 복원 설계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생긴 잘못된 복원이라 지적한다.

현재 금산 태조대왕 태실은 '태조대왕 태실(太祖大王 胎室)'이라는 명칭으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어있다. 금산군은 2017년 태조대왕 태실의 보물 지정 요청을 위하여 한 차례의 학술연구를 실시하였다.[18] 동 보고서에는 검토의견서 및 전문가 조사의견, 연혁·특징 및 지정 가치, 3D 스캐닝 및 실측도면 자료, 학술·고증자료, 항공사진을 포함한 사진자료, 지도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영향 행위기준(안), 복원 및 보존정비·활용 계획(안),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서는 「100년 만에 돌아온 조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 태조태실과 덕흥대원군 태실을 중심으로 조선왕실의 안태문화에 대한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태조대왕 태실 보물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에 수록된 3D스캔 이미지

18) 금산군, 2017, 『태조대왕 태실 보물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 서산 명종대왕 태실

명종대왕의 태실은 조선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따라 건립되었다. 태를 봉안한 태실(石室)과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안태비)' 1기가 먼저 건립되고, 명종이 즉위한 후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가봉비)' 1기,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개수비)'를 교체하여 재건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태실 1기와 비 3기가 전한다.

서산 명종대왕 태실은 관련 기록이 상세히 전해져있고, 원래의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서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커 2018년 3월 26일 보물 제1976호로 지정되었다.[19]

태실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번지에 위치한다. 태실지는 가야산의 지맥으로 현재는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산업소에서 관리하는 목장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태봉 바로 아래까지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다. 태봉의 정상부로 올라가는 길은 정비가 되어 있으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 명종대왕 태실 원태봉지 위치도

19) www.heritage.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사이트)

▲ 서산 명종대왕 태봉 전경

▲ 서산 명종대왕 태실지 현황

명종대왕 태실도 일제강점기 훼손되었던 것을 1977년 당시 목장의 주인이었던 고 김종필 총리의 도움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으며, 이 당시 태실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원이 이뤄져 부분적으로 잘못 복원된 부분들이 확인된다. 2015년 정밀실측 및 심화연구를 통해 충남도지정 유형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지정하기 위한 실측조사 및 학술연구가 추진되었으며, 명종대왕 태실과 관련 각종 문헌자료를 총망라하고, 이를 분석하여 역사적 가치를 고증하였으며, 실측조사를 통해 석물을 사진과 도면으로 기록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8년 보물 제1976호 승격 지정되었다. 이후 2019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물 승격 이후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간 문제제기 되었던 태실 중앙부 부동침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동석부분의 기울어짐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제안하여 2020년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실측조사가 진행되었다.

▲ 명종대왕 태실 현황 종합분석도

2023년 현재 중동석 부분의 부동침하가 심화되고 있는 점과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1990년대에 설치했던 판석이 지형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전반적인 해체수리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진행 중에 있다.

명종대왕 태실은 무엇보다 조선왕실 안태문화의 상징적 존재인 가봉태실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 형식과 가치가 압도적이라 생각된다. 풍수적 경관과 지형을 거의 온전하게 보존한 것으로 생각되며, 비록 온전한 복원은 아니지만 이른 시기에 원태봉지에 복원되었으며, 부재들 또한 복원고증에 필요한 주요 부위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명종대왕 태실은 향후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 과정에서 간판스타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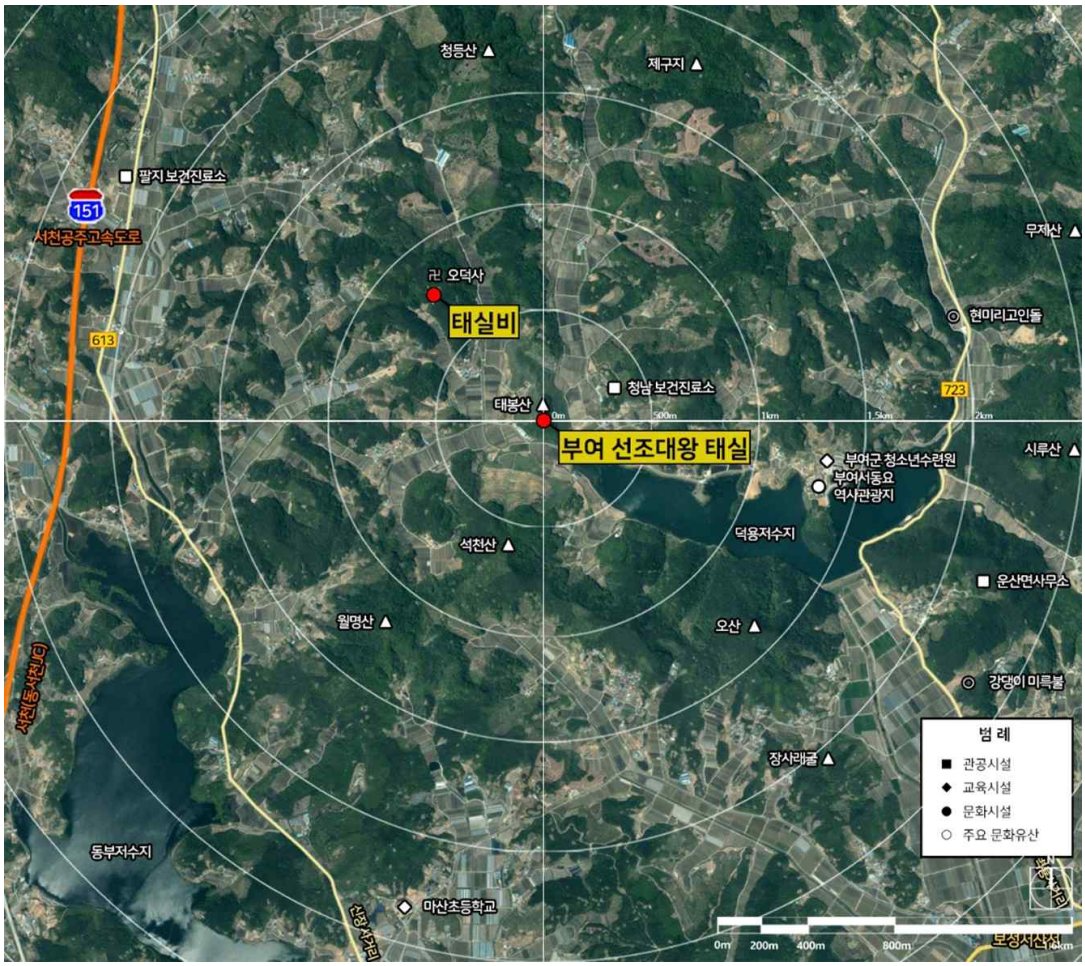
▲ 명종대왕 태실 관련 연구보고서(충남역사문화연구원 수행)

3) 부여 선조대왕 태실

선조대왕 태실의 원태봉(초안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청남리 산227번지에 위치한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태실비(개수비)는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산 62-1 오덕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부여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봉비는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109-9번지에 위치해 있다.

태봉산 정상부에는 민묘 1기가 위치해 있다. 민묘는 비석이나 연고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인을 알 수 없다. 태봉 정상부 주변 능선으로 선조대왕 태실의 구성석물로 추정되는 석물들이 흩어져있다. 사방석편으로 보이는 치석면이 정방형인 1점과 용문이 세김된 것으로 보아 귀부편으로 보이는 석 1점 등이 확인되나 석물들은 대부분 파손된 상태로 확인된다.

선조대왕 태실과 관련된 비석은 현재까지 2기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오덕사 경내에 위치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17호인 선조대왕 태실비(宣祖大王 胎室碑)로 개수비이다. 다른 하나는 오덕리 태봉마을에 위치한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제112호 충화 선조대왕 태실비(忠化 宣祖大王 胎室碑)로 가봉비이다.



▲ 선조대왕 태실 원태봉지 위치도

오덕사 경내에 위치한 선조대왕 태실비는 처음 건립한 태실비(충화선조대왕 태실비)가 세월이 지나 글자가 마모되자 1747년(영조 23)에 다시 세웠음을 비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개수비'이다. 귀롱대석은 표석에 비해 규모가 적은편이며, 왕실 관련 유적으로서 전체적인 조형성과 세부 각(刻)은 조악한 수준으로 보이며, 사찰경내의 화단에 일정구역을 구획하여 정비하였으나 귀롱대석의 절반이상이 흙에 묻혀있어 전체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귀부는 매우 둔한 느낌을 주며 귀부 위에 세워진 비신과 이수는 1매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비신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명문이 새겨져있다. 귀롱대석은 생물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끼류 서식은 물론 고착지의류도 곳곳에 관찰된다. 비신의 경우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비신의 각자 또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각자를 제외한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연회색 또는 진회색의 변색이 관찰되고 있다. 이수는 표면에 고착지의류로 인한 흑갈색의 생물 피해가 관찰되나 조각된 용의 형상은 뚜렷하게 잘 남아있다. 선조대왕 태실비는 오덕사 경내에 2그루의 배롱나무 사이에 위치한다. 태실비 우측으로는 옥외소화전 1기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태실비 전면에 안내판이 위치한다. 문화재대장에서는 선조대왕태실비의 간략한 보수정비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2017년과 2018년에 선조대왕태실비 주변 정비를 각각 시행하였다.

가봉비인 '충화 선조대왕 태실비'는 표석으로 비신의 각자가 훼손되어 교체된 것으로 개수비에 비해 이수의 용문의 각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개수비에 비해 그 조형성과 세부 각의 품질이 왕실유물로서 격을 갖추고 있다. 비의 하부인 받침은 새로 조성한 것이며, 새롭게 제작된 받침 위에 비가 놓여져 있다. 개수

비로 교체되면서 태종주변에 묻힌 것을 주민들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전시하고 있음. 비신 우측면에서 진녹갈색의 생물피해가 관찰되며, 정면 및 배면의 각자 역시 뚜렷하진 않지만 대체로 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임. 이수 표면에서 흑갈색의 생물피해가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풍화가 심각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 선조태봉 주변 석물 : 사방석편 추정

▲ 선조태봉 주변 석물 : 표석 상부 이수부분 편 추정

▲ 선조대왕 태실 현황 종합분석도

4) 예산 현종대왕 태실

현종대왕의 태봉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189-46에 위치한다. 현재 현종대왕 태봉은 2011년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며 태봉 정상부 태실지가 멸실되었다.

시기별 위성사진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태봉이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2011년 사이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하면서 태봉의 지형이 1차적 훼손이 가해졌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 태실지는 훼손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1~2015년 사이 태실이 조성되었던 태봉정상부까지 지형이 훼손되과 태양광발전소가 자리하게 되었다.

▲ 현종대왕태실 원태봉지 위치도

향토사자료 및 신문기사 등의 자료조사를 통해 현종대왕 태실의 석물은 태함, 아기씨태실비, 동자주, 횡죽석편, 함개 등이 사진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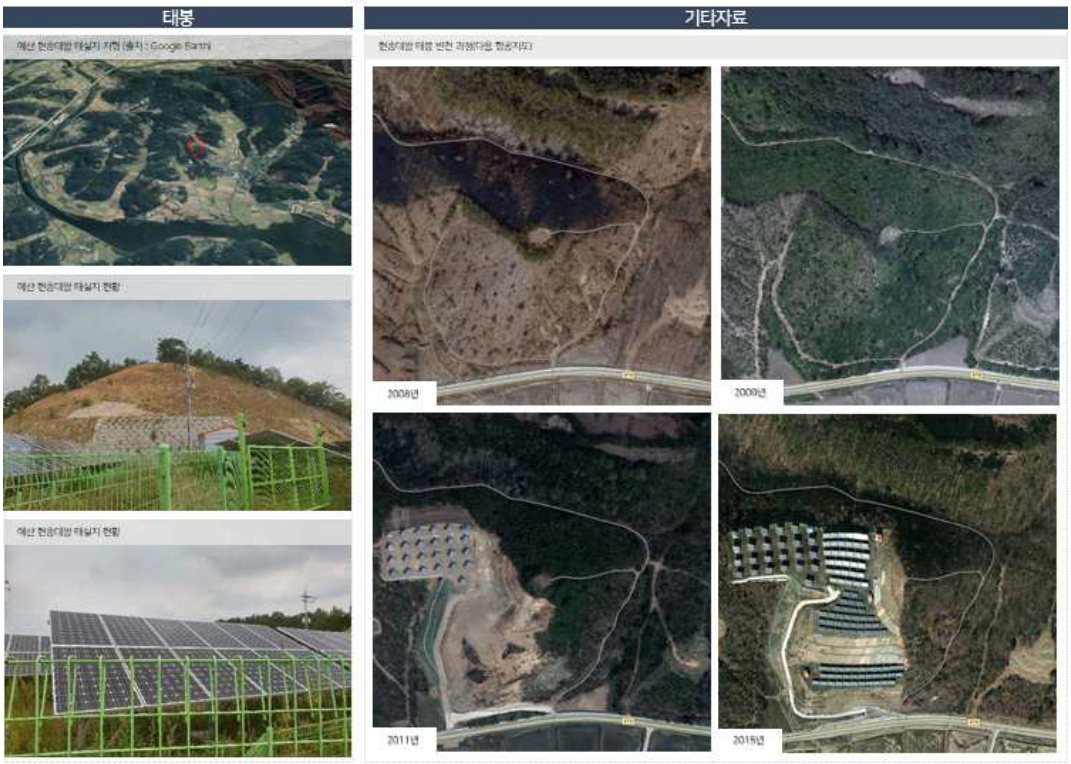
유일하게 실물이 확인되는 아기씨 태실비는 예산문화원 건물앞 정원에 있던 것을 현재는 예산군청 앞 지역의 비석문화재를 옮겨놓은 곳에 함께 이전되어 지역민들이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하고 있다.[20]

2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예산군 태실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예산군, 2016

▲ 현종대왕 아기씨태실비(안태비) 전시현황(2016년 당시) 및 안내표석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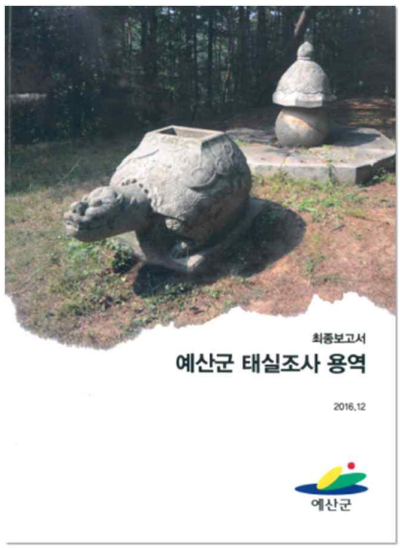
2016년 조사당시 현종대왕 아기씨태실비는 태봉에서 8.1km 정도 떨어진 예산문화원(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본관 앞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비신과 이수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으며 비신의 앞면에는 [대청숭덕육년이월초사일축시생원손아지씨태실(大淸崇德六年二月初四日丑時生 元孫阿只氏胎室)], 뒷면에는 [順治四年 … (순치4년…)]이 각각 새겨져있다. 비좌는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비신과 비두와의 차이가 뚜렷하다.

아기씨태실비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이수 정면에 가로로 흰색 줄무늬가 있다. 비신의 표면도 비교적 깨끗하고 음각 또한 육안으로 뚜렷하게 관찰 가능하다. 그러나 비신 정면 곳곳에 얇은 균열과 패임 등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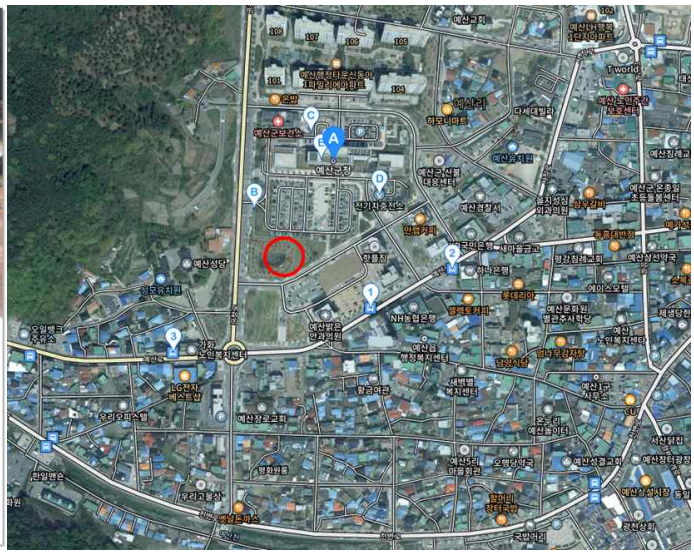


▲ 현종대왕 태실 현황 종합분석도

사전자료조사에서 확인한 현종대왕 태실의 태함, 동자주, 횡죽석편, 함개의 사진은 아래와 같으며, 앞서 언급했듯 현재는 모두 소재불명인 상태이다. 예산군에서는 이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나 석조문화재의 특성상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는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예산군 태실조사 최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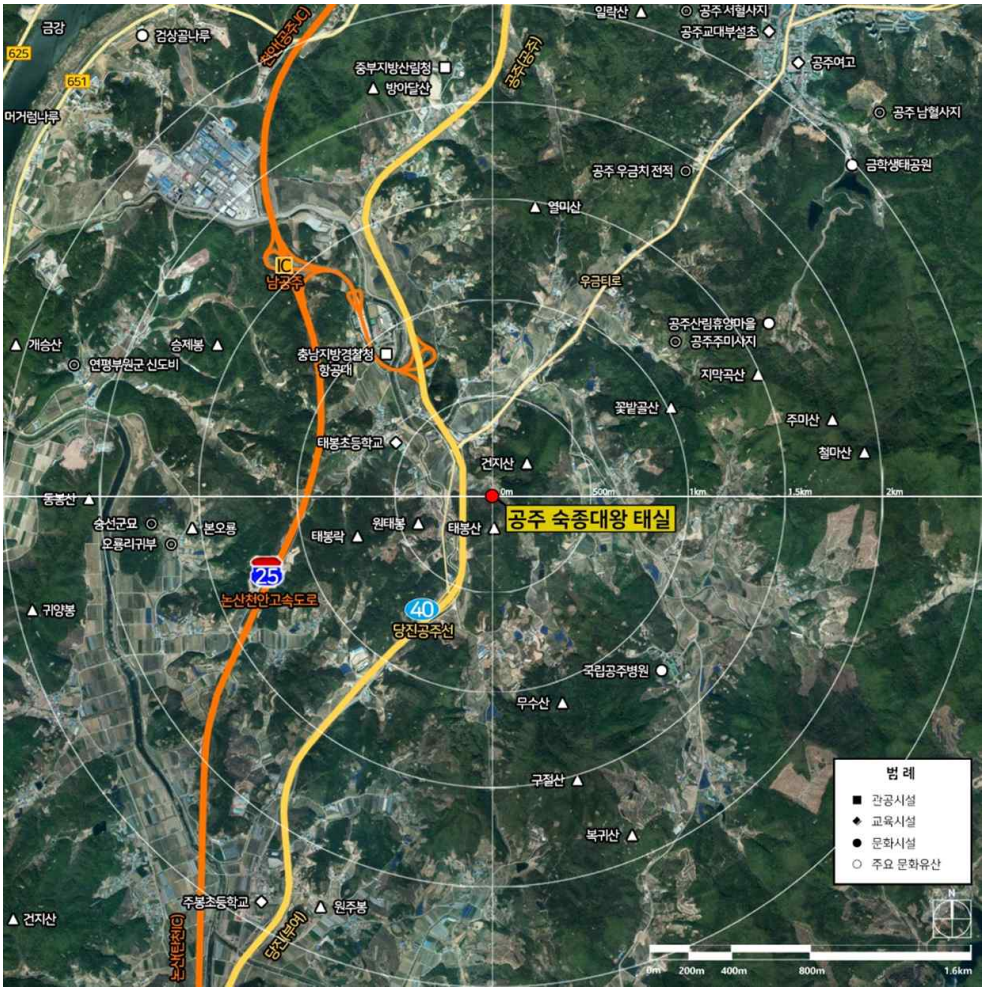
▲ 현종대왕 아기씨 태실비 이전위치(현재)

▲ 예산군청 앞 공원에 이전된 전경

▲ 현종대왕 아기씨태실비 현황(2023.08)

5) 공주 숙종대왕 태실

숙종대왕 태실은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산 64-1에 위치한다. 태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비가 되지 않았으며 밤나무군락지를 통과해야 태봉 정상부에 도달할 수 있다. 태봉 정상부의 원 태실지로 추정되는 자리에 민묘1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태봉 정상부에 위치한 2개의 비(주상전하태실비, 아기씨태실비)가 1991년 공주시의 보수정비 이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1호인 공주숙종대왕태실비(公州肅宗大王胎室碑)와 문화재 안내판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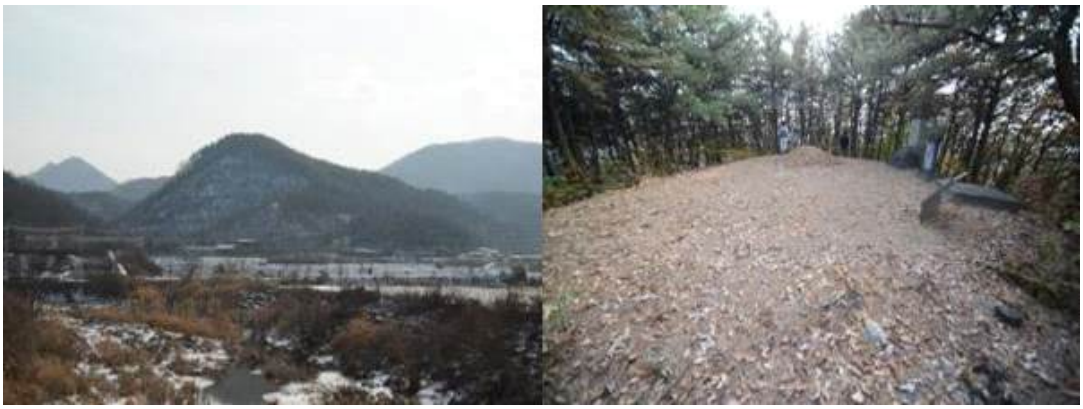


▲ 숙종대왕 태실 원태봉지 위치도

현재 태봉 정상부에 위치한 숙종대왕 태실 관련 석물은 총 3개(아기씨태실비, 가봉비, 사방석추정부재)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아기씨태실비와 가봉비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있으며, 사방석 추정부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 않다.

먼저, 아기씨태실비는 비좌, 비신, 이수가 모두 일체형으로, 비수에는 복판연화문(複瓣蓮花文) 12엽(葉)을 시문(施文)하였으며, 비의 좌대(座臺)는 방형으로 2분하여 중앙에 연화를 배치하였다.[21] 높이는 159cm, 비신의 폭은 54cm, 두께는 15cm이고, 좌대는 높이가 50cm, 폭 93cm, 너비 59cm이다. 비신 앞면에는 [순치십팔년팔월십오일묘시생원자아지씨태실(順治十八年八月十五日卯時生元子阿只氏胎室)], 뒷면에는 [순치십팔년십이월이십오일진시립(順治十八年十二月二十五日辰時立)]이라 새겨져있다.

21) 디지털공주문화대전(http://gongju.grandculture.net)



▲ 숙종대왕 태봉(좌) 및 태실지 현황(우, 민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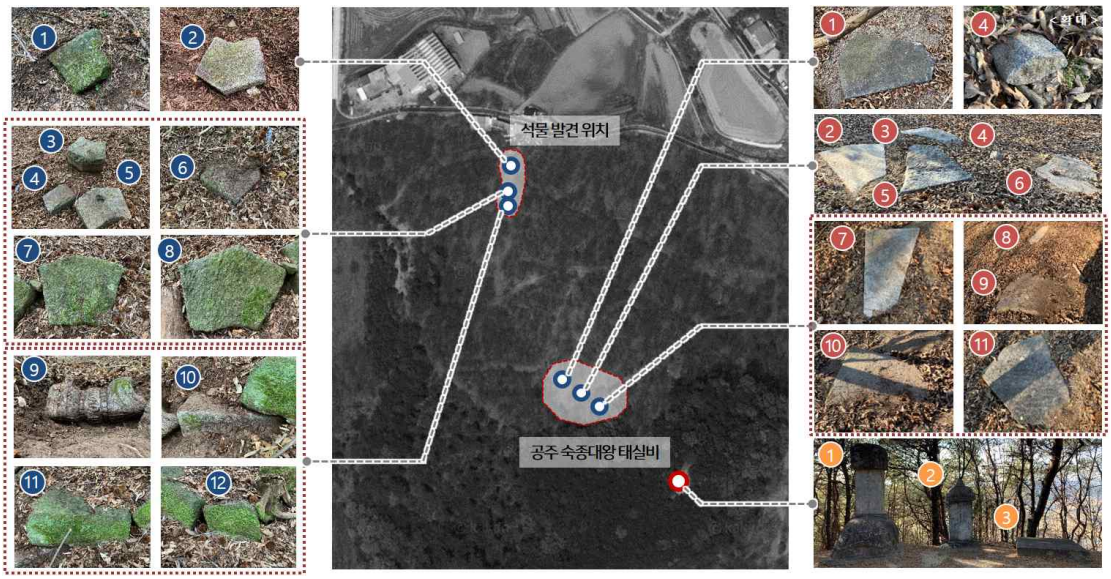
가봉태실비는 귀롱대석과 이수를 갖추고 있으며, 귀롱대석의 배면에는 6각의 귀갑문으로 완전히 채우고, 윗면 중앙에 장방형의 비좌를 만들었으며, 귀부의 머리는 짧은 목에 머리를 왼쪽 위로 틀어올렸다.[22] 가봉태실비의 정면에는 [주상전하태실(主上殿下胎室)], 뒷면에는 [강희이십이년십월십오일건(康熙二十二年十月十五日建)]이라 새겨져 있다.

▲ 숙종대왕 태실 석물 현황

태봉 하부의 골짜기와 밤나무농장에에 숙종대왕 태실의 훼손된 석물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태봉 인근에 대한 조사를 2021년 실시한 결과, 태봉 북측 능선 및 골짜기를 따라 산재한 태실 석물 부재 23점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확인된 석물은 동자주석, 횡죽석(편), 우전석, 면전석, 우상석, 면상석 등이다. 태봉 북측 밤나무골 입구 부근에서는 우전석, 면전석과 함께 동자주석 1점을 포함한 12점의 석물을 발견하였다. 태봉 능선 지표상에서는 우상석, 면상석과 함께 횡죽석편 1점을 포함한 11점의 석물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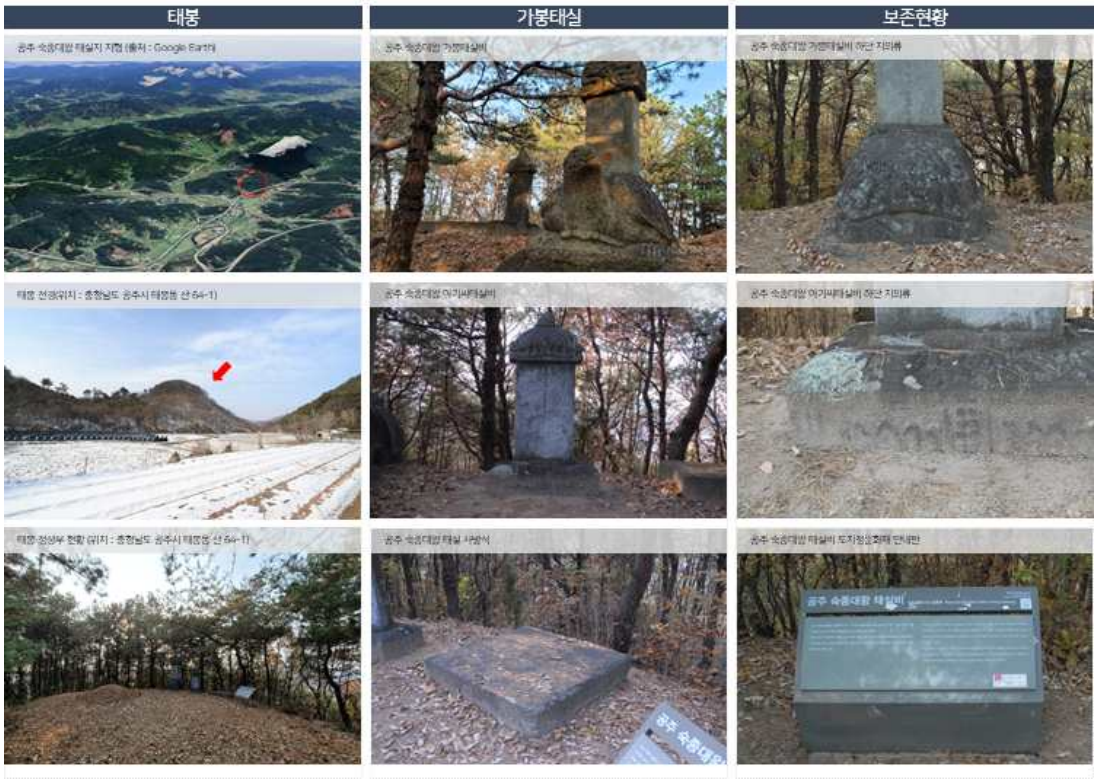
- 태봉 진입로 부근 : 동자주석 1점, 우전석 7점, 면전석 4점 / 총 12점
- 태봉 능선 지표상 : 우상석 5점, 면상석 5점, 횡죽석편 1점 / 총 11점

22) 디지털공주문화대전(http://gongju.grandcultur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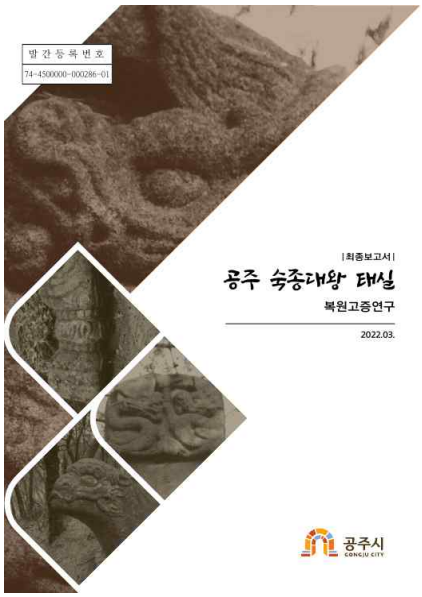
▲ 숙종대왕 태실석물 분포도

2021년 조사 당시 발견문화재로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현장자문을 통해 현재는 충남역사박물관에 해당 부재들을 이전하여 야외전시하고 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석물을 발견하였으나, 핵심이 되는 중동석과 개첨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추후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중동석과 개첨석, 그리고 나무지 부족한 부재들에 대한 조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숙종대왕 태실 현황 종합분석도

2022년 복원고증 학술연구를 통해 숙종태실의 추정 복원안을 작성하였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가봉태실비 및 아기태실비에 대한 구체적인 실측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지만, 조선시대 가봉태실의 특성상 형태와 양식이 유사하고, 전, 후대에 걸쳐 상호 형태적 참고가 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기록을 통해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등 기존의 연구와 다른 사실들과 방법론으로 고증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가봉태실비 및 아기태실비에 대한 3D스캔을 별도로 추진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통해 작성한 추정 복원안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석물의 배치를 고려한 복원예상도를 작성하였다. 태실 석물의 복원예상도는 작성된 태실의 추정복원안 전면에 가봉태실비가 세워지는 배치로 작성되었으며, 아기태실비 역시 스캔되었으나 본래 태실의 가봉과정에서 가봉태실비를 새로 세우며 인근에 묻히는 것이 관례이므로 완성된 복원예상도에서는 제외하였다. 아래 그림은 고증복원 연구의 결과를 3차원 그래픽을 재현한 복원예상도이다.



▲ 숙종태실 고증연구 최종보고서

▲ 숙종대왕 태실 복원예상도

▲ 숙종대왕 태실 예상 정면 및 조감도

6) 예산 헌종대왕 태실

예산 헌종대왕 태실의 원태봉지(초안지)는 가야산의 동쪽 지맥의 끝자락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산 6-2에 위치한다. 현재는 태봉주변에 저수지(옥계저수지)가 조성되어 본래의 경관이 변경되었으나 태봉산의 지형은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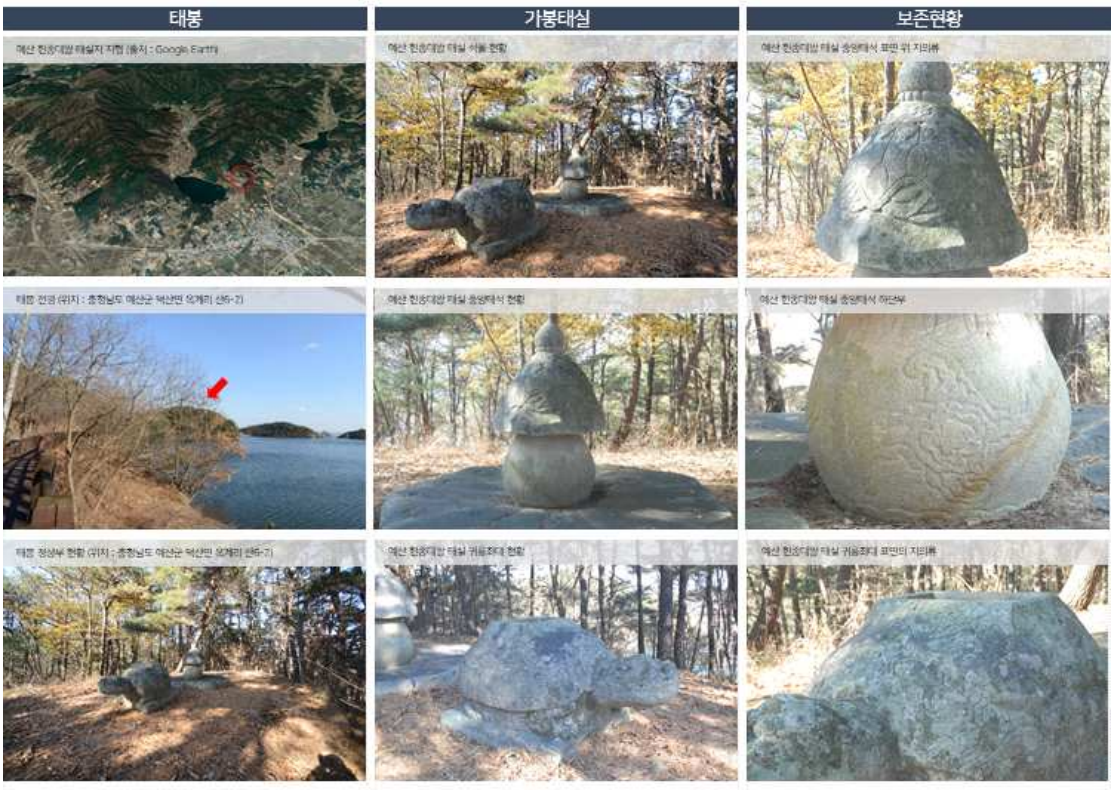
태봉 정상부 태실지에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이후 석물들이 흩어져 있던 것을 지역민들이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귀롱대석, 전석, 중동석, 개첨석 등의 석물들을 모아 임시 조립한 상태이다.

▲ 헌종대왕 태실 원태봉지 위치도

현전하는 헌종대왕 태실의 석물은 귀롱대석과 전석 14기, 중동석 1기, 개첨석 1기와 사방석 1기이다. 귀롱대석에 설치되었던 표석은 최근 그 하부가 발견되었다. 파손된 하부 편이 확인되었는데, 전면에 '○○○(下)胎室'이라고 표기되어 태실비 임은 확인되었다. 후면의 날짜기록은 헌종태실의 가봉당시와 일치한다. 다만 비신의 절반과 상부 이수가 있는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조사에서 수집된 1960년대 사진 개인소장 사진자료에서 상부 이수부분의 운문과 용문 각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난간부의 엽엽주석과 중동석등도 사진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복원고증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1960년대 사진에 나타난 헌종태실 석물(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6, 재인용)

그러나 현장에 가조립된 석물을 잘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태실이 8각형 평면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7각형 형태로 조립되어 있다. 이는 우전석과 면전석이 각각 1기씩 모자라 14개의 전석으로 완성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또한 사진으로 확인된 중동석은 원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난간주석은 현장에서 이탈되어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헌종대왕 태실 현황 종합분석도

2015년 9월과 2017년 7월 예산군 학예연구사(이강열)는 탐문을 통해 태봉 옆 옥계저수지에 헌종태실 관련 석물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중조사를 감행하였다. 기적적으로 가봉비(편)과 사방석을 찾아 인양하였다. 인양된 석물은 현재 덕산면행정복지센터 물품창고에 보관중이다. 예산 헌종대왕 태실은

태봉의 형태도 대체로 잘 남아있고, 태실지에 구성석물들이 다수 잔존하며, 옥계저수지에서 추가 석물들을 인양함에 따라 복원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봉태실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3점의 태봉도 중 하나가 헌종태실의 태봉도라는 점, 의궤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며 강점이다. 이에 예산군은 2016년 예산군 태실조사 용역을 통해 헌종태실의 문화재지정을 위한 심화조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토지소유주가 토지매입이나 문화재지정에 관해 회의적이며, 해외에 거주 중인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굿모닝충청 2015.09.04.

조선 헌종대왕태실 사라진 비석, 예산 옥계저수지서 찾았다

이후 헌종의 태실의 태(백자항아리)는 일제강점기 경기도로 옮겨가고 태실비와 태실유구가 1970년대 까지 완전히 남아 있었으나 사실상 방치돼 일부 석물은 분실...

'사라졌던' 조선 헌종대왕 태실 비석은 저... 연합뉴스 2015.09.04. 네이버뉴스

'사라졌던' 조선 헌종대왕 태실 비석은 저... SBS(text) 2015.09.04. 네이버뉴스

조선 헌종대왕 태실 비석, 저수지 속에서 발견...복원 ... 미디어펜 2015.09.04.

▲ 2015년 가봉비 편 인양 당시 신문기사 목록

대전일보 2017.07.03.

예산군, 헌종대왕 사방석(四方石) 태실 유물 발견·인양

인양된 헌종태실 사방석은 상석 위에 올라가는 유물로, 중동석(中童石)을 받치기 위한 팔각형태의 석물이다. 크기는 110㎝, 두께는 20㎝이며 측면에 구름문양이 ...

예산군, 조선 24대 헌종대왕 태실 유물 인양 디트뉴스24 2017.07.03.

조선 24대 헌종대왕 사방석(四方石) 태실유물 발견·인양 중부매일 2017.07.03.

[예산군] 예산군, 조선 24대 헌종대왕 사방석(四方石) ... 중도일보 2017.07.03.

예산, 조선 24대 헌종대왕 사방석(四方石) 태실유물 발... 충남일보 2017.07.03.

관련뉴스 8건 전체보기 >

▲ 2017년 헌종태실 사방석 인양 당시 기사 목록

▲ 헌종태실 표석 하부부분(좌:전면, 우:후면)

▲ 헌종태실 사방석

7) 홍성 순종황제 태실

홍성 순종대왕 태실의 원태봉지(초안지)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336-38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1년 옹기공장에 들어서면서 태봉은 멸실되었다.

▲ 순종대왕 태실 원태봉지 위치도

태봉 멸실로 인하여 남아있는 태실 구성 석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태봉의 동서남북 4방에 약 200보(100m) 떨어진 곳에 설치한 화소비 중 1기는 온전하게 남아있다.

태봉 주변에는 산불 방지목적으로 동서남북 4방에 약 200보(100m) 떨어진 곳에 설치한 구조물은 화소비(火巢碑, 화재예방을 위한 경계표시)가 있었지만 현재는 한 개만 남아있다. 또한 이 태봉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왕실 관리 재산(임야, 전, 답)이 있었으나, 태봉 이전 후 민간에게 불하하였다고 한다.

화소비에는 '火巢'라는 글자가 전면부에 세로로 뚜렷하게 음각이 되어있다. 치석의 형태는 장방형의 석재에 비두에 해당하는 윗면을 둥글게 호의 모양으로 다듬은 형태이며, 화소를 알리는 기능에 맞게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다. 화소비의 각자를 중심으로 고동색의 표면 오염이 확인되며, 주변 잡목에 가려져 육안상으로는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현재 화소비 위치가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홍성 순종대왕 태실과 관련된 근현대시기 기록은 이왕직 관련 기록에서 1911년 11월 12일 사이카와 다케히코(在川武彦)을 보내 충청양도의 태봉산의 부속지를 조사하여 경계를 정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고, 1911년 12월05일에는 이왕직 속 미야키(宮氣)로 하여금 충남, 충북, 전북의 태봉산 경계를 정하는 일로 출장을 가도록 명한 기록이 있어 이와 관련된 심화조사시 추가적인 관련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에 발간된 『구항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항면지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태봉을 허물고 태항아리 1점을 서울의 서삼릉으로 이전하면서 태석(태항아리 받침대)과 뚜껑 구조물은 구항초등학교 교정으로 가져가 당시 일장기를 계양하는 국기대 기초구조물로 사용했었다고 한다.

▲ 홍성 순종대왕 태실의 멸실과정

▲ 순종대왕 태실 현황 종합분석도

3. 충남지역 조선왕실 태실문화재의 특성

태실문화재는 크게 태실이 위치한 장소인 태봉과 정상부에 위치한 태실지 그리고 태실지에 분포해 있는 관련 석물로 구성된다. 특히, 문화재적 개념의 태실에서 '태봉'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태실의 조성과정에 있어서 장태지를 풍수지리적으로 길지에 선정하며, 그 자체가 태실문화재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실문화재의 가치는 아기씨태실과 가봉태실로 분류할 수 있다.

아기씨태실은 안태비(아기씨태실비)와 봉분 그리고 봉분 아래의 태함, 이 모든 것이 위치한 태봉으로 구성된다. 육안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태봉, 안태비, 봉분 뿐이지만 일제강점기에 대다수의 태실이 서삼릉 집장지로 이장되면서 석물이 유실되기도 하였다. 현재 충청남도 소재의 아기씨태실은 의혜공주(11대 중종의 차녀), 덕흥대원군(11대 중종의 7남), 명선공주(18대 현종의 장녀), 명혜공주(18대 현종의 차녀), 명안공주(18대 현종의 삼녀), 연령군(19대 숙종의 6남), 화유옹주(21대 영조의 10녀), 화령옹주(21대 영조의 11녀)로 총 8기가 분포하고, 태주가 미상인 입침리 태실이 1개소 확인된다.

가봉태실은 태조(1대), 명종(13대), 선조(14대), 현종(18대), 숙종(19대), 헌종(24대), 순종(27대)으로 총 7기가 분포한다. 가봉태실은 태실의 주인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태실 주변에 난간석과 비석 등을 새로 조성하여 격식을 높인 태실이며, 아기씨태실과 비교해 태실의 규모와 양식이 웅장해져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태실 16개소의 태봉 및 석물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태실의 특성상 태실이 입지한 태봉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태봉현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원태봉의 위치는 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종대왕 태봉과 순종대왕 태봉은 지형이 파괴되어 현존하지 않으며, 태봉에 주요석물들이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석물들이 남아있는 경우 석물을 문화재로 지정한 상황이다. 원태봉(초안지)는 일제강점기 불하되어 대부분 민간소유로 파악되며, 태실이 있던 산정상부에는 민묘가 들어서 있는 경우가 절반가까이 확인되었다.

가봉태실의 경우 석물과 원태봉 상황이 양호한 대상을 중심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건(보물 명종대왕태실)과 도지정문화재 3건(태조, 선조, 숙종)이 확인되며, 태봉 지형이 훼손되어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현종, 순종) 향토유적이거나 비지정인 경우가 확인된다. 아기씨태실의 경우 안태비(아기씨태실비)를 대상으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거나 지역 박물관 또는 특정장소에 보관되고 있어 중요성은 지역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봉석물이 온전한 경우는 명종대왕 태실이 유일하며, 이 또한 일부 부재는 복원과정에서 신재를 보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헌종대왕태실의 경우 현종, 순종태실처럼 태봉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가봉태실의 경우 최소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비지정인 상태이다. 예산군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토지소유주와의 의견조율에서 난항을 겪으며 문화재지정이 표류중이다.

연번	태실명	① 원 태봉		② 태실지		③구성석물						비고
		원 태봉	문화재 지정위치	석물	민묘	비			태실			
						안태	가봉	개수	태실부	난간부	기단부	
1	태조대왕태실 (금산소재)	○	×	×	○	×	×	○	○	○	○	도지정
2	명종대왕태실 (서선소재)	○	○	○	×	○	○	○	○	○	○	국가지정
3	선조대왕태실 (부여소재)	○	×	△	○	○	○	○	×	×	×	도지정 (향토유적)
4	현종대왕태실 (예산소재)	×	×	×	×	○	×	×	×	×	×	비지정 초안지훼손
5	숙종대왕태실 (공주소재)	○	○	△	○	○	○	×	×	△	△	도지정
6	헌종대왕태실 (예산소재)	○	×	○	×	×	△	×	○	×	○	비지정
7	순종대왕태실 (홍성소재)	×	×	×	×	×	×	×	×	×	×	비지정 화소비잔존
8	의혜공주태실 (부여소재)	○	×	×	○	–			–			향토유적
9	덕흥대원군태실 (금산소재)	○	×	○	○	–			–			민묘
10	명선공주태실 (보령소재)	○	×	×	×	–			–			–
11	명혜공주태실 (부여소재)	○	×	○	○	–			–			향토유적
12	명안공주태실 (부여소재)	○	×	×	○	–			–			민묘
13	연령군태실 (예산소재)	○	×	○	×	–			–			송전탑
14	화유옹주태실 (당진소재)	○	×	○	×	–			–			송전탑
15	화령옹주태실 (예산소재)	○	×	○	×	–			–			–
16	입침리태실 (예산소재)	○	×	○	×	–			–			발굴조사

▲ 충청남도 태실의 태봉 및 석물 현황(○:확인(온전), △:부분, ×:확인불가(부재))

Ⅳ.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 방향

1. 세계유산과 조선왕실의 가봉태실

세계유산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두 유산이 복합적으로 한 장소에서 어우러져 있는 경우 '복합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기념물과 건축물군 그리고 유적으로 구분되는데 인공구조물을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역사, 예술, 과학적 관점, 그리고 미학적, 인종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에서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연유산'은 물리학적, 생물학적, 지질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 또는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등으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 관점에서의 탁월한 보편성을 가진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유산제도는 1978년 폴란드의 비엘리치카(Wieliczka) 소금광산과 함께 최초로 등재된 12건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약 1,120여건이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제도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의 문화적 탁월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유산의 보존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보존 노력을 견인하였다. 또한 세계유산이라는 타이틀은 브랜드화되어 세계적인 홍보를 유발하였고, 관광객 증가를 통해 유산과 주변 거주민들의 사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유형유산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확장되어 유형유산과 함께 존재하는 문화적 현상, 언어, 문학, 음악, 춤, 공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이 채택되었으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1992)'사업을 통해 기록유산에 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왕실 가봉태실은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태실이 입지한 지형적 가치, 즉 풍수적 관점에서 명당에 입지한 점과 인공구조물로서 역사적, 예술적 관점에서의 탁월성, 특히, 현재와 미래세대를 넘어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로서 탄생과 태반처리문화에 있어 독보적인 유산임에 초점을 맞춘 '문화유산'으로 적합하다 생각된다.[23]

또한, 이미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실의 의궤중 상당수가 안태의례와 관련된 것들임을 감안하고, 의궤속 내용을 통해 안태의례 전반을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선왕실의 안태의례와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4]

2. 가봉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

조선왕실의 태실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잠재가치가 충분하다. 이는 '태 문화'의 보편성과, 조선왕실의 가봉태실의 독보성(우수성)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이 제시하는 세계유산협약이 제시하는 세계유산의 가치판단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인류 부편의 것을 의미하는 보편성(Universa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 중에서 특히 뛰어난 것(Outstanding, Excel)의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데, 태실문화재 또한 역시 그러한 가치를 갖는다.

---

23) 풍수적 관점을 고려하여 입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주변 지형이 잘 보존되었다면, '복합유산'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지형훼손들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복합유산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점은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하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검토해 보아야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24) 비약일 수 있으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종묘'와 함께 '종묘제례와 종모제례악'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처럼, 또 조선왕실의 많은 의례들을 기록한 의궤가 기록유산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연구한다면 '안태의례'의 현대적 전승 방안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많은 연구들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태는 열 달 동안 어머니와 태아를 한 몸으로 이어주고, 태아를 키워 내는 생명줄과 같다. 아기를 출산한 이후에 태를 함부로 하지 않고, 땅에 묻거나 물에 흘려보내는 것은 전 세계의 179개 문화집단 중 109개 집단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화특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반을 땅에 묻는 '장태(藏胎)'의 전통 역시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다 하겠다.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장태문화(藏胎文化) 그 중에서도 조선왕실의 '안태문화(安胎文化)[25]와 가봉태실'은 다음의 사항들에 주목할 수 있다.[26]

첫째, 조선왕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한국의 태 처리 문화에서는 생명의 기반이 되었던 태와 태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사상적 상징을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이며,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인류보편의 사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산이다. 둘째, 조선왕실의 안태문화는 엄격한 기준과 전범에 따라 추진된 국가적 행사로 추진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복행위가 아니라 왕실의 의례와 규범에 따르는 발전된 형태의 문화적 표현임을 의미한다. 세계사를 통틀어 장태에 대한 인식과 행위가 있었으나 행위는 다소 원시적인 수준을 탈피하지 못했으나 조선왕실의 경우 그 세세한 과정과 안태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조선왕실의 안태문화는 조선왕실의 안위를 위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당시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왕권중심의 정치체계를 갖춘 조선의 중앙정부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여러 장치중 하나로 활용하면서, 지역민과의 깊은 연관성을 가진 유산으로 서사성까지 지닌 유산이라는 점이다. 조선왕실의 태실은 왕가와 조정의 '직할'인 서울·경기 지방을 넘어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조성하였다. 넷째, 대상의 구체성, 즉 대상유산이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대상이 분명하게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아기씨 태실을 조성한 왕실의 수많은 자손들이 잇지만, 그들 중에서 왕에 등극한 이들의 가봉태실은 명확하게 그 대상을 목록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조선 왕실의 안태문화와 그 상징물인 가봉태실은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생명존중사상'을 표출하는 문화적 표현이며, 그로부터 규범화된 문화 활동으로서의 '예술성'을 지님이 확인된다. 또한, 태실의 조성은 왕실의 인기를 고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적 목적 또한 갖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태실은 세계유산 등재기준에서의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

25) 이글에서는 용어의 정의상 태를 다루는 일반적이며 포괄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장태' 또는 '장태문화'로 지칭하고, 조선왕실의 독보적인 장태문화를 구분하기 위해 '안태' 또는 '안태의례'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26) 이는 몇 차례의 조사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자의 의견대로 '조선왕실의 안태문화와 가봉태실'이 향후 세계유산등재가 추진된다면 전문가들의 연구와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가치를 추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분류	등재기준		사례
기본원칙	완전성, 진정성,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 내재 여부 판단 및 적절한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	**한국 종묘**
	(v)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한국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 세계유산 등재 기준(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또한, '진정성(authenticity)'에 있어서는 역사적·학술적 고증을 통해 형태와 디자인, 재료 및 내용물, 사용 및 기능, 전통. 기술. 관리체계, 위치 및 주변환경,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 및 감정 등 유산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속성에 대한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태실 관련 각종 '의궤'와 '안태등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가능하다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들이 충분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연구들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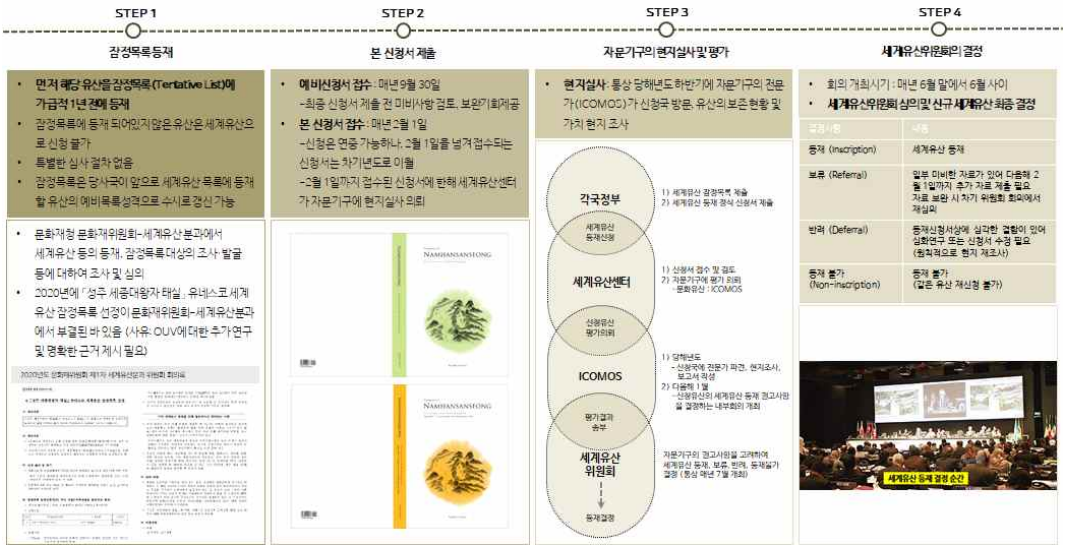
'완전성(integrity)'에 있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본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인지,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앓고 있는지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화재지정여부,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높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장기 로드맵

태실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하삼도에 해당하는 충청, 경상, 전라지역에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봉태실의 경우 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충청북도에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태실들이 그 원형을 훼손당하였음은 서삼릉 태실[27] 연구를 비롯한 여러 글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에 들어서야 태실 전체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세종대왕자태실을 중심으로 성주군과 경상북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세종대왕자태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면서, 유산의 가치증진과 확산을 위해 지역의 핵심자산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성주군은 세종대왕자태실(사적)을 세계유산화하고자 오랜 시간 공을 들였으나 아쉽게도 단독등재 보다는 연속유산을 등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가봉태실을 세계유산화하기 위한 씨앗이 되었으며, 최근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북도가 연합하여 가봉태실을 세계유산화하고자 협력하기 시작하였으며, 충청북도까지 동참하게 되었다. 경북 성주군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맺기 위해 열심히 자라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초보적 단계로 기초적인 단계의 조사자료의 누적과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태처리문화와 태실에 대한 조사연구는 지역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큰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은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유산인 태실, 그 중에서도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를 목표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이 요구된다.



▲ 가봉태실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예상 모식도

세계유산화는 우리 전통문화와 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서 태실을 전세계적으로 인지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해야하며, 세계적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일종의 최종 관문으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적으로 지정문화재화가 가장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잠정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대상을 구체화하여 목록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27)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西三陵胎室(서삼릉태실)』

다음의 표는 가봉태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세계유산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구상하여 분류하고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고고학적 조사와 심화연구, 문화재지정 및 문화유산 브랜드화 등 세계유산화를 통해 태실의 유산가치의 증진과 확산을 꾀해야한다. 또한 개개의 태실들의 물리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 보존처리 및 해체수리 등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사업이 준비되어야 한다. 여기에 세계유산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방문여건을 조성하고 향유콘텐츠 개발함과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관람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확장된 개념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의학, 화장품사업 등과의 연계는 물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방재시설의 설치 등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심의 세심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분류	주요사업	세부 계획	내용
가치의 증진과 확산	고고학 조사	발굴조사	태실 점유면적(지정구역)에 대한 발굴
		지표조사	태봉 조성영역(주변영역)에 대한 지표조사
	심화학술연구	역사·문화 가치연구	태실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 탐구
		문화재 관리 정책연구	태실의 지속적 관리와 가치 활용 정책 연구
	문화재지정	태실별 문화재 지정신청서 작성	기록화 및 라벨링 또는 공적자산화
	문화유산 브랜딩 및 세계유산화	대국민 문화재 정책 홍보	대 국민 태실 가치 및 정책 홍보
		태실 문화재 전문가 학술행사	태실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 간 학술교류
		세계유산 등재추진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단계 수행
보존 및 수리복원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보존처리	보존현황 진단 및 조치사항 로드맵 작성
	보존처리 및 해체보수	해체 및 원형복원(재조립)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해체보수
		부재 보존처리	부재 및 부속물에 대한 보존처리
장소 마케팅	관람환경조성 (hardware)	관람로 조성	태실 방문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
		안내 및 편의시설 조성	태실 방문객 정보제공 및 편의 지원
		경관 및 조경 개선	태실 향유의 시각적 매력요소 함양
	방문여건조성 및 향유콘텐츠 개발(software)	문화향유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태실 콘텐츠 발굴 및 매력도 제고
		태실관광 코스개발	지역 관광과 연계한 태실 관광 코스개발
기타 주제	사업부지 확보 및 기타	안전방재시설 설치	CCTV를 비롯한 문화재 방재 설비 구축
		기타: 태문화 현대화 사업	기타 유관 사업

▲ 태실의 문화유산으로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방향

Ⅴ. 마무리하기 : 충청남도가 해야 할 일

마무리하는 글은 앞서 언급한 여러 사항을 토대로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들보다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에 있어 앞장서야 할 당위성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과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의정토론회가 일회성행사가 아니라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 특히 충남지역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싶다.

1. 가봉태실 세계유산화에 있어 충청남도의 역할

역사적으로 가봉태실은 전국에 28기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이 유산들이 세계유산 등재 대상목록에 모두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몇몇 유산들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는 우리 문화유산이 또 하나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기왕이면 그 과정에서 우리 충남이 해야 할 역할, 다시 말해 충남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필자는 그간의 연구과정에서 정리해본 바가 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충남은 가봉태실의 간판스타 '서산 명종대왕태실'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왕실의 태실과 관련된 유적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지정이 된 것은 분명 경북 성주의 세종대왕자태실(사적 제444호,)이며, 최근 '영천 인종대왕 태실(보물, 2022.08)이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점차 국가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가봉태실'로서 단독유산으로는 '명종대왕태실(보물, 2018.03)'이 첫 국가지정문화재이다. 특히, 명종대왕태실이 입지한 태봉은 다른 어떤 태봉들보다 그 경관과 지형이 잘 보존되어 온 곳이며, 태봉에서 볼 수 있는 경치 또한 가히 최고라 할 만한 곳이다. 다시말해, 가봉태실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충남은 조선왕실 안태문화의 시작과 끝이 되는 가봉태실 또는 태봉지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왕실의 안태문화 전반에 있어서 현재의 충남지역에는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대왕태실(금산)과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태봉(홍성)이 있었던 곳이다. 뿐만아니라 가봉태실 관점에서도 역사적으로 마지막 가봉태실 조성은 '헌종대왕태실(예산)'이 마지막이었다. 이 또한 우리 충남이 보유하고 있다. 왕실의 안태문화의 시작과 끝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가봉태실의 첫사례와 마지막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 과정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높일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충남은 왕에 등극한 가봉태실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숫자 3을 좋아한다. 그래서 약간 억지스럽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특히 경북에서, 조선왕조의 실제 왕위에 등극한 왕들의 태봉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실제 가봉태실을 9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추존왕 1개소(예천의 장조)와 왕비 2개소(영주, 예천)를 제외하면 6개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왕위에 등극한 왕들의 태봉은 가장 많은 곳이다.

전술한 사항들은 경북이나 충북, 경기도 등과 소모적 경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연속유산으로서 함께 협력해야하는 입장에서 기왕이면 우리 충남이 주도적으로 참여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관심도를 불러

일으키고, 충남도의 지원을 확고히 하여, 향후 우리 지역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2. 충남지역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를 위해 우리가 가야할 방향

1) 충남도 자체 마스터플랜 수립과 태처리 민속 전수조사 필요

세계유산은 국가적 차원(당사국=문화재청)에서 대처한다. 연속유산은 여러 지방정부들에 분포하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며, 각 지방정부들은 각각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 목록에 우리지역 유산을 등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더더욱 각 지방정부(자치단체)들은 등재과정을 보다 효과적,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각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의 준비기간, 결코 저렴하지 않은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함께,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충남은 조선왕실의 안태문화와 관련된 태실문화재는 조사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왕실의 문화를 떠 받치는 민간의 문화, 즉 민속적 관점에서 태실문화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당장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내에서 계층 간의 비교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아이들의 출생이 병원에서 이뤄지면서 이미 사라져 가고 있는 민간의 태처리문화를 살피고, 아직 태처리 문화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화하여 세계유산화라는 긴 여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다.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한번은 살펴야할 사항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충남도 마스터 플랜의 출발점이어야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다른 광역단체 들과의 협력을 위해 기본으로 확보되어야할 사항이다.

이에, 세계유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태처리 민속에 대한 전수조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충청남도 문화유산과가 함께 기획하여 내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 **「(가제) 충남지역 태처리문화 전수조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전문연구자 양성과 심화연구 필요

가봉태실이 지닌 가장 큰 약점은 충남지역에는 전문연구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며, 그에 따라 대부분이 기초연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의 격에 맞는 기초적인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학술연구를 충실하게 누적해 나가야하며, 이는 민간의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에서는 적극적인 연구진흥을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학술연구총서 발간을 기획하고,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민간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태실관련 전문연구자 풀도 더 늘려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매년 정기 학술대회 개최
- 학술연구총서 시리즈 발간 등

3) 가봉태실의 문화재 지정 및 승격

세계유산화를 위해서는 국내적 상황 또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문화재지정이다. 가봉태실은 대체로 태실의 석물에 초점을 맞추어 보물과 같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봉태실의 진정한 가치는 입지한 장소와 경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유형적 유산과 장소적 유산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식으로 문화재지정이 이뤄져야하며, 기왕 국가지정으로 지정한다면 석물은 유형문화재로 태봉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향후 세계유산화 과정에서 Core Zone과 Buffer Zone설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재 가봉태실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그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태조대왕태실은 충청남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조선 건국 후에 처음으로 조영된 태실이고, 비교적 보존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앞서 태조대왕 태실의 원래의 가치를 충분히 고양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원 태봉 및 태실지에 이전복원을 하거나 잘못된 복원을 바로잡고 기타 보존처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원태봉지 확보 후, 고고학적 조사를 거쳐 태함 확인을 통해 위촉확인 후 이전)

선조대왕태실 같은 경우, 현재 도지정문화재(오덕사 경내에 위치한 개수비)와 부여군 향토문화유산(태봉마을 입구에 위치한 가봉비)으로 비석들이 문화재화되어 있다. 다만, 태봉(초안지)에서 이탈한 상태이며, 원태봉에는 민묘가 들어서 있는 상황으로 해결해야할 사항들이 일부 있으나, 태봉의 확보와 함께 고고학 조사를 거쳐 석물배치에 대한 정보확보와 태봉주변의 지표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석물확보를 동시에 진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문화재지정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를 먼저 진행하고, 심화연구를 통해 국가지정 승격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현종대왕태실은 태봉(초안지)에 태양력발전소가 들어서 석물이 설치되었던 태봉의 정상부가 훼손되어 태봉의 문화재 지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잔존한 안태비(예산문화원 소재)만이라도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최소한 향토유적으로 지정필요)

숙종대왕태실은 주상전하태실비와 아기씨태실비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만, 태실부의 석물이 다수 태봉산 하부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석물들을 시급히 수습하여 태실의 완전성을 도모하여 기존 도지정문화재와 통합하여 복원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지정을 고려해 볼만하다 생각된다.

헌종대왕태실은 원 태봉과 태실지가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가봉비와 중앙태실의 난간부를 제외한 구성석물들이 현장에 갖춰져 있고, 2018년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가 한차례 진행되었다.[28],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헌종대왕 태실은 빠른 시일 내로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의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헌종대왕태실과 같이 관련의궤가 있고, 현재 남아있는 석물과 유실된 석물에 대한 정보를 종합할 때 복원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대상은 엄격한 복원과정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도 지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오히려 가야산의 풍수와 연계하여 장소와 석물이 동시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순종대왕태실**은 현재 태봉도 멸실되었고, 구항초등학교 국기대로 사용했다고 구전되는 석물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형체를 지닌 것은 멸실된 태봉 앞에 남아있는 '화소비' 뿐이다. 따라서 가봉태실이었던 '순종대왕태실'에 대한 기억을 위해 '화소비'를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28) 공주대학교, 2018,『헌종대왕 태실 도지정문화재 지정 승격용역 보고서』, 공주시

태실명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상황 요약	문화재 지정방안
태조대왕태실 (금산소재)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원 태봉 및 태실지에 민묘 1기 위치	태조의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사적) 승격 추진
명종대왕태실 (서선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제1976호) 지정	추가 지정 없음 또는 태봉을 포함한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 추진
선조대왕태실 (부여소재)	선조대왕태실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17호 충화 선조대왕 태실비: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제112호	산재된 석물을 하나의 도지정문화재(유형)로 통합 지정, 태봉은 기념물 지정 추진
현종대왕태실 (예산소재)	현재 지정된 문화재 없음 원 태봉에 태양력발전소가 들어서며 심각하게 훼손됨 아기씨태실비는 예산문화원에 위치, 보존상태 양호	아기씨태실비를 예산군 향토유적 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 추진
숙종대왕태실 (공주소재)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1호 원 태봉의 형태 대체로 유지, 태실지에 민묘 1기 위치, 주변에 유실 석물 분포 복원고증 연구 수행(2022.03)	산재된 석물을 하나의 도지정문화재로 통합 지정 추진 체계적 복원정비 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헌종대왕태실 (예산소재)	현재 지정된 문화재 없음 원 태봉의 형태 대체로 유지, 태실지에 구성석물 및 인양유물이 위치하여 복원가능성 시사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또는 유형문화재) 신규지정 추진 체계적 복원정비 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순종대왕태실 (홍성소재)	현재 지정된 문화재 없음 태봉이 이미 멸실되었고 구성석물 또한 소재불명 상태	잔존 화소비 1기를 홍성군 향토유적으로 지정 추진

▲ 충남지역 가봉태실의 현황과 지정문화재화 방안 검토

이를 위해서는 공주시에서 했던 거처럼 각각의 가봉태실에 대한 고증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또는 신규지정을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별로 분포된 아기씨 태실의 경우 향토유적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또한 함께 필요하다.

4)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와 광역적 협력 필요

먼저, 세계유산화를 위한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유산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문화재청)에서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때마침 문화재청의 연구지원사업이 진행되는 점은 좋은 기회라 생각 된다. 세종대왕자태실로 인식되어 있는 문화재청의 인식도 개선시킬 겸 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잠정목록' 등재를 최우선 공통과제로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4개 광역단체(충남, 충북, 경북, 경기)의 연합체 성격의 추진단 결성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잠정목록 등재를 기반으로 행정당국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고, 이를 아직 부족한 각종 연구사업으로 연계하여, 생산된 연구결과물들이 세계유산으로 가기 위한 든든한 근거자료로 구축될 수 있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가봉태실의 분포 경향 상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세계유산화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29], 산사(한국의 산지 승원)[30], 한국의 서원[31] 등의 국

29)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재)백제세계유산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0)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해남군 등에 산재한 각각의 유산을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31) 경상북도 영주시, 경주시, 안동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함양군,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등 중앙정부와 14개 지방자치단체, 학계, 서원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9개의 유산을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

내 여러 연속유산 사례들처럼 범지역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이른바 '통합추진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 도의회에 요청드리는 바는 전술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심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는 것부터 충남이 세계유산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 길고 험난한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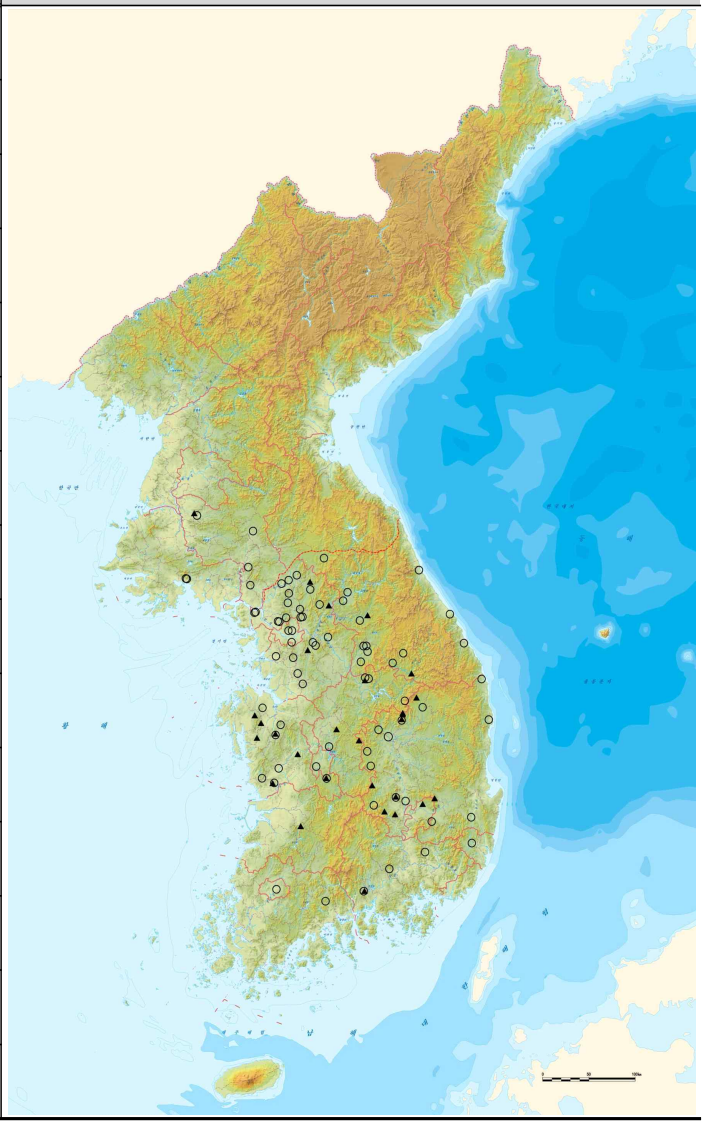
존관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참고문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2.03,『공주 숙종대왕 태실 복원고증 연구 최종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02,『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11,『명종대왕 태실 및 비 종합정비계획 최종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6.12,『예산군 태실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5.10,『명종대왕 태실 및 비 정밀실측 및 심화연구 최종보고서』.
심현용, 2016,『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조선왕실의 태봉』,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국역 안태등록』, 민속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국역 호산청일기』, 민속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조선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 민속원.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조선의 태실』 Ⅰ·Ⅱ·Ⅲ, 전주이씨대동종약원.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회정, 2015,「태실의 문화재지정 현황과 가치보존에 관한 일고찰-충남지역을 중심으로-」,『충청학과 충청문화』 20.
심현용, 2015,「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충환, 2015,「인류학과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본 장태문화」,『영남학』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홍성익, 2015,「조선시대 태실의 역사고고학적 연구」,『영남학』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김지영, 2014,「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역사와 세계』45, 효원사학회.
박대윤, 2011,「조선시대 국왕태봉의 풍수적 특성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석인, 2000,「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 서삼릉 이장 태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부록> 1. 조선왕실 태실 문화재 지역별 분포현황(2016년 조사 기준)

지역	전체태실		가봉 태실		조선시대 아기씨태실 및 가봉태실 분포도
	개수	%	개수	%	
계	143	100.0	28	100.0	
경기도	36	25.2	3	10.7	
충청남도	16	11.2	7	25.0	
충청북도	7	4.9	3	10.7	
전라남도	2	1.4	·	·	
전라북도	1	0.7	1	3.6	
강원도	16	11.2	2	7.1	
경상남도	6	4.2	1	3.6	
경상북도	41	28.6	10	35.7	
황해도	6	4.2	1	3.6	
평안남도	·	·	·	·	
평안북도	·	·	·	·	
함경남도	·	·	·	·	
함경북도	·	·	·	·	
위치미상	12	8.4	·	·	



※ 참고

1 . 통계자료 및 지도는 심현용의 『한국 태실 연구(2016년, 경인문화사)』의 내용을 참고, 발췌함.

2. 지도표기 상 ○:아기태실, ▲:가봉태실로 표기함.

▫ 삼한~고려시대의 태실은 아직까지 그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고고학적 자료로는 신라 김유신 태실과 고려 인종 태실 뿐이며 조선왕실의 태실 관련 유적은 143개소로 조사되었고 그중 가봉태실은 28개소이다. 조선 27명의 임금 중 23명의 임금 태실과 3명의 왕비 태실(소헌왕후 심씨, 정희왕후 윤씨, 폐비 윤씨), 그리고 추존 왕 태실(장조와 문조)이 있다. 27명의 임금 중 태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4명의 임금은 연산군, 효종, 철종, 고종이다.

▫ 가봉태실의 분포는 경상북도(35.7%), 충청남도(25%), 경기도. 충청북도(10.7%), 강원도(7.1%), 전라북도. 경상남도. 황해도(3.6%) 순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 아기태실 및 가봉태실의 분포는 하삼도(下三道)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록> 2. 태봉도

- 태실(胎室)은 태아를 둘러싼 조직인 태를 항아리에 모신 뒤 조성한 시설이다. 조선 왕실은 자손이 태어나면 태를 명당이나 길지에 묻는 태실을 만들었다. 또 태실 주인이 왕위에 오르면 화려한 석물과 비석을 더 설치했는데, 이를 담은 그림이 바로'태봉도'(胎封圖)다. 이 태봉도 3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 문화재청은 '장조 태봉도'·'순조 태봉도'·'헌종 태봉도'(사진 왼쪽부터)와 함께 '건칠보살좌상'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등 불상, 불경 '묘법연화경'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http://www.kidshankook.kr)>

▲ 장조(사도세자)태봉도(좌), 순조태봉도(중), 헌종태봉도(우)

<부록> 3. 태실관련 용어

●태실(胎室) :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태(胎)가 태어난 아기의 생명선이자 근원이라 소중하게 생각하여 명당(明堂)이나 길지(吉地)를 택하여 일정한 의식과 절차를 거행한 후 태를 땅에 묻고 조성한 시설물. 출산 후 태를 장태(藏胎)하기 위해 조성된 석실과 석물

●가봉(加封) : 태실의 주인이 왕위에 오르면 석물을 단장하는 의례

●아기태실(阿只胎室) : 가봉되지 않은 태실 또는 가봉되기 이전의 태실. 태호와 태지석 등을 석함에 넣은 후 개석으로 덮고 이를 흙으로 다시 덮은 후 분구(墳丘)를 만들고 그 앞에 아기비를 세움

●가봉태실(加封胎室) : 가봉된 이후의 태실. 아기태실의 태주가 왕위에 등극하면 봉분을 해체한 후 팔각원당형 부도와 같은 양식의 중앙 석물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난간석을 설치하고 아기비는 묻고 가봉비를 건립

●아기태실비 : 아기태실의 주인공과 장태시기 및 건립시기를 알려주는 것으로 표석(標石, 表石)으로도 부른다. 돌로 만들었으며, 비대와 비신 및 비수로 구분됨.

●안태(安胎), 장태(藏胎) : 태를 묻는 일을 뜻한다. '장태'는 '갈무리한다'는 뜻으로 태를 잘 둔다고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말이고, '안태'는 태를 편안하게 둔다는 '잘 갊아 둔다'의 뜻으로 '안태'가 더 격이 높음. 또 안태에는 '안(安)'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안장(安葬)하다', '안치(安置)하다'는 정중한 뜻이 담겨 있음. 그러나 '안태'와 '장태' 두 가지 용어의 의미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음.

●태봉(胎封)과 태봉(胎峯) : '태봉(胎峯)'은 태실이 있는 산의 보통명사이고 '태봉(胎封)'은 봉(封)을 한다는 행의, 의례(儀禮) 등 이에 부수되는 제반 절차, 행사까지 다 포함되는 의미. 그러나 '태봉(胎峯)'과 '태봉(胎封)'은 그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 다 태실을 안치한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태봉에 대한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胎峯', '胎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태함(胎函) : 왕가에 출산이 있을 때 출생아의 태를 담는 상자. 태함은 태를 담은 태호를 보호하는 석실로 돌로 만들며, '석옹(石甕)'이라 부르기도 함.

●태호(胎壺) : 태호는 태를 담는 항아리를 말하며 태항(胎缸), 태옹(胎甕), '태항아리'라고도 함. 태호는 태를 담은 작은 내호(內壺), 내호를 담은 큰 외호(外壺)로 구분되며 이들은 다시 몸체인 호(壺)와 뚜껑인 개(蓋)로 구분됨.

●태지석(胎誌石) : 태주의 출생일시와 장태일시가 기록되어 태주를 알려줌.

●아지(阿只) : 아지의 독음은 '아지'이지만 '아기'를 의미함.

<부록> 4. 세계 여러지역의 태처리 문화

국가		태 처리 방법
유고슬라비아		산후처리 시 태반을 잘라 식초와 함께 먹거나 장미 덤불 밑에 매장
불가리안		태반을 끓인 물에 목욕을 하면 임신이 된다고 믿음
		깨끗한 곳이나 과일나무·옥수수 밭에 묻음
추바시인		태반과 탯줄을 한 곳에 모아 보관
폴란드		인적이 없는 곳에 매장
		급류에 던짐
		행운 혹은 액운을 막아주는 부적으로 사용
몽골		노간주나무를 태워 잿더미 속에 묻음
중국		태반을 밟거나 혹은 진흙 속에 보관
		재와 함께 병· 항아리에 넣어 침대 아래에 보관
		짚이나 두터운 종이로 싸 돌에 매달아 강에 넣음
		산 언덕의 높은 곳에 매장
		담벼락 모서리 혹은 인적이 드문 뜰에 매장
		성별에 따라 문 안 혹은 과수나무 아래에 묻음
		태반을 태워 죽통에 넣은 후 수장
터키		깨끗한 천에 싸서 땅에 묻음
프랑스		불에 태워 집 근처의 과일나무 아래에 묻음
우즈베키스탄		태를 열매를 맺는 나무 아래에 묻음
베트남		물을 제외한 다른 곳에 깊게 매장
일본		섭취, 수중처리, 소각, 풍화, 매장 처리 등 다양하게 태를 처리함
팔레스타인		태반에 소금을 뿌리거나 문설주에 걸쳐 피하게 하
오지브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고에 태반을 나무지게에 매달음
셀레베 섬		흰 솜에 싸 항아리에 보관
아이슬란드		바닥에 묻은 태반을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밟게 함
노르웨이		산모가 직접 태반을 칼로 자름
네덜란드		산파가 태반을 묻은 땅에 꽃을 뿌리거나 혹은 하얀 솜으로 덮은 항아리에 태반을 넣어 바다에 던짐(네덜란드의 특정 섬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태 처리 방식)
뉴질랜드		산모가 비밀 장소에 매장함(마오리 족이 행하는 태 처리 방식)
오스트리아		녹색 나무 밑에다 매장함
스페인		젖소 주인이 개울에 태반을 던짐(갈라시아 지역에서 행하는 태 처리 방식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항아리에 보관한 태반을 강에 묻거나 던짐
	자바	과일과 꽃으로 둘러싼 태반을 작은 뗏목에 두어 악어가 섭취하게 하거나 산모가 태반을 직접 섭취함

▲ 여러 나라의 태 처리 방법

토론 1

“태실” 충남의 유산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前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이 왕 기

“태실” 충남의 유산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이왕기 (前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것이 마치 국력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세계유산을 등재하려고 한다. 한국의 2022년 현재 13건의 문화유산과 2건의 자연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합하여 1154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2021년기준)

이미 잘 알려진 이른바 엘리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모두 등재되었고 이제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걸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유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유산 중에서 인류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산 등이 점점 등재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다.

태실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인류의 한 분파가 한반도에 살아오면서 오랜 역사에 걸쳐 만들어놓은 인류의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충남도에는 현재까지 모두 16개소의 태실이 있다. 이 중에는 서산 명종대왕 태실만 국가지정 문화재로, 금산의 태조대왕 태실과 공주 숙종대왕 태실비와 석물, 부여 선조대왕 태실이 충남도 유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을뿐 나머지 13곳의 대부분 태실은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태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훼손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태실을 김회정 박사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에서 카테고리(ⅲ)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실은 이런 측면에서 인류문화의 독보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태실이 지니고 있는 인류의 문화적 특징은 명확하고 독보적임에 틀림이 없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을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잉태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

이다. 이보다 인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태어나면서 나이를 한 살을 주는 것이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인류문화의 한 형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태실 묻는 장소가 풍수에 근거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본주의 사상이 배경이기 때문이다. 풍수는 중국의 비롯한 동아시아의 오래된 풍습이다. 특히 한국에서 풍수는 오래전부터 적용해 오던 사상중 하나로 지금도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문화 행태 중 하나이다. 태실을 묻는 태장문화는 풍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인류문화이다.

태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장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특히 왕실의 태는 매우 귀한 것이므로 안전하고 위엄있게 만들었다. 태함부터 태실, 난간석, 비석에 이르기까지 위엄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태실은 대부분 석조물로 만들었는데 당시의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조선 왕실의 태실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단순히 '태(胎)'를 묻어둔 곳으로 볼 것이 아니다. 태실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독보적인 문화유산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인류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태실은 충남도민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충남의 태실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태실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가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는 매우 미약하다. 아직 현황조사도 미비하므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일은 현황조사다. 다양한 분야에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역사, 기록물, 지리, 풍수, 민속, 지질, 석조물, 주변환경, 식생, 조경, 경관 등 조사해야 할 분야가 많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조사 뿐만 아니라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태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태실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태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세계유산 등재시키는데 훌륭한 설명 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해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태실 문화유산 보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태실이 더 이상 자연재해나 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가치가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정부기관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나 약속이 없으면 세계유산 등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태실 문화유산 보존계획' 수립은 태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을 신청하는 대상은 반드시 국가에서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할 수 있다. 잠정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잠정목록으로 등재되기 위한 첫걸음은 앞에서 열거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2021년 기준으로 이미 12건의 잠정목록이 등재되어 있다. 이 유산들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를 바라고 있다. 태실이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도 그 순위는 13번째가 되는 것이다.

이밖에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오늘 발표한 김회정 박사께서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언급하였다. 쉽게 흘려 버리면 안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야 비로소 충남도에 소재한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태실은 인류가 만든 문화유산 중에서도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비록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지만 세계유산으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충남도의 문화유산에서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토론 2

태실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경험

성주군 고분전시관 팀장
박 재 관

태실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경험

박재관 (성주군 고분전시관 팀장)

발표자께서는 불모지에 가까웠던 충청남도의 태실 조사와 연구를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연구자로서 여러 태실에 대한 성과물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문도 충청남도 지역 태실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향후 태실을 어떤 방향으로 세계유산화할 것인지,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

발표자께서 특별히 본 글을 통하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주군에서 세종대왕자 태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뿌린 씨앗이 싹을 남몰래 틔우고 자라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담당자로서 조금의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토론자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질문이나 다른 견해 등을 제시해야겠지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 토론회의 취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성주군에서 세종대왕자 태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진행한 경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성주군은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2014년 세계유산 가치규명 학술연구부터 다양한 연구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태실 관련 학술 도서를 발간했다. 또한 태실 및 주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심의한 결과는 대체로 세종대왕자 태실 단독 등재보다는 연속유산 등재의 필요,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규명 부족을 지적하며 부결되었다.

돌이켜 보면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작업은 2014년부터 10여 년을 진행한 상태로 성주군수를 위시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예산 계상 등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동안 용역비, 보수정비비 등 7억 원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

라 군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역적인 요구를 담아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한 출발의 한계로 단독 등재를 추진한 결과, 기간의 노력과 다양한 연구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잠정목록에 등재되지 못하였다.

한편 성주군은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등재를 지역 국립대학의 학술연구기관 한 곳에 전적으로 의뢰하여 추진하였는데, 과정에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연구자를 참여토록 협의가 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성주군에서는 이러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고려, 등재 방식의 변경,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재규명 등을 위한 학술용역을 세계유산 등재의 경험을 가진 연구책임자와 전문연구기관을 섭외하여 진행하고 있다. 마침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가 함께 태실을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군의 연구성과가 더해진다면 향후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가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직접적인 토론보다는 경험의 보탬으로 앞으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출발을 위한 밑받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 3

의회

충청남도 조선왕실 태실의 보존관리 방향성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김 경 미

충청남도 조선왕실 태실의 보존관리 방향성

김경미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충남지역 태실의 현황과 세계유산화를 위한 방향」은 조선왕실 태실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조사한 가봉태실의 현황 분석 및 연구 로드맵을 명확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복원된 가봉태실 태조, 명종, 현종, 숙종, 헌종, 순조태실에 관한 매우 체계적인 분석이 돋보인다. 따라서 질문보다는 향후 추진 로드맵에 가까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조선왕실의 태실은 전국에서 좋은 땅을 골라 생명탄생의 근원인 태를 묻어 태주의 복을 발원하는 장태문화로 풍수지리사상과 결합된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태실은 아주 높은 산보다는 뻗어내린 산 줄기에서 낮은 언덕처럼 봉긋하게 솟아오른 봉우리로 햇볕이 잘드는 입지에 조성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산을 '태봉(胎封)'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지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태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물질은 땅 위의 중앙태석과 난간석, 땅 아래의 태항아리와 석함, 태지석이다. 이들 구성물의 재질은 땅 위 중앙태석과 난간석, 석함, 태지석은 돌로 조성되고, 태항아리는 도자기로 제작되었다. 각각의 구성물은 제작을 담당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돌로 만드는 석물의 경우 태실이 있는 지방에서 물자를 직접 조달했고, 귀한 태를 담은 태항아리는 예조의 관리 아래 국가기관인 장흥고에 소속된 도공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도자기술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의궤, 태봉 등록 같은 기록물을 제작하여 태실의 진정성 속성이 잘 나타난다.

태실은 결국 태를 보호하는 용도와 기능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전통관리체제로 조선 말까지 완전성 아래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형식과 규칙을 갖추고, 계속 조성하면서 보존 관리된 예는 조선왕실의 태실이 유일하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28-29년에 걸쳐 왕과 왕자·공주의 태실 총 54기가 고양 서삼릉으로 강제로 이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태실의 태항아리와 태지석이 옮겨지고, 남은 석물은 방치되고 훼손되었다.

오늘날 태실을 복원하여 원형가치를 찾는 노력이 가봉태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롭게 정비되는 가봉태실은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원래의 태장지에 전하고

있던 석물을 사용하고, 훼손된 석물 일부만을 대체하여 원형대로 복원하고 있다. 이처럼 복원된 태실을 평가할 때 진정성(authenticity)을 지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21) 86조에서 진정성과 관련해서 복원(reconstruction)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볼 때 조선왕실 태실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시대에 우리의 전통성이 훼손되던 시절에 불가피하게 훼손되었고, 정비작업에서 기초가 되는 의궤 및 태실관련 문헌자료는 태실의 형태, 장소 등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통해서 복원한다는 면에서 진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진정성을 분석할 때 무엇보다도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ouv기술을 위한 유산의 속성분석이 필요하다. 즉 운영지침 78-82조에 따라 복원태실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은 '초장지에 있는가', '원래 재료를 사용하여 복원한 것인가'라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태실 초장지, 원래의 석물사용 유무가 진정성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성에 충실한 태실은 어디가 해당 된다고 평가하시는가? 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진정성을 갖추었지만, 보존관리체제에서 완전성이 미흡한 태실은 무엇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태실 소유권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궁금합니다.

토론 4

충남지역 태실 연구 및 홍보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관장
민 정 희

충남지역 태실 연구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민정희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관장)

먼저, ‘충남의 태실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꿈꾼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충청권 1등 인터넷신문 굿모닝충청 김갑수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회정 박사는 조선왕실의 태실, 그중에서도 임금으로 등극하여 가봉한 태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가 협력해야하는 당위성, 특히 충남에 분포하는 가봉태실의 현황, 세계유산화를 위한 방향,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충청남도의 역할 등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문을 통해 김회정 박사가 2015년 이래 충남의 태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나아가 충남의 태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노력들이 읽혀집니다. 저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지역 태실의 현황과 세계유산화 방향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정 박사의 발표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첫걸음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희망과 함께 몇 가지 의견 제시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용어 문제입니다.
① 발표자는 34쪽 9줄에서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장태문화 그중에서도 조선왕실의 안태문화와 가봉태실은~”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27에서 장태문화는 태를 다루는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지칭하고, 조선왕실의 독보적인 장태문화를 구분하기 위해 안태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장태와 안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46쪽 부록과 같이 장태(藏胎)와 안태(安胎)는‘태를 묻는 일’을 뜻합니다. 당대에도 두 가지 용어를 구

분하기 보다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태는 태를 묻는 <행위>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안태는 태를 편안하게 한다는 장태의 <목적>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주 27처럼 장태문화를 태를 다루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면, 이는 '태처리'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문

② 발표문 곳곳에는 '태실문화', '장태문화', '안태문화', '태처리문화'등 문화라는 용어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문화의 한 현상이기에 태실, 장태, 안태, 태처리 등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연구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

① 가칭) 충남지역 태처리문화 전수조사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1) 태처리에 대해서는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남편』(1976년 간행,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년 학술조사사업), 『한국인의 일생의례-충남편』(2009년 간행,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2007-2011년 학술조사사업), 이외에도 충남에서 발간한 각종 시군지, 민속조사 보고서(『충남민속연구목록』, 2010년 간행,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참고, 2010년 이후 발간은 별도 조사 필요)에서 태처리에 대해 시군별로 분류.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남편』에서 충남의 182개 지역에서 회수된 설문지에 의하면, 불에 태우는 방법(138개 지역, 76%), 땅에 묻는 방법(29개 지역, 16%), 물에 띄우는 방식(15개 지역, 8%)의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에 묻는 방법은 종이에 싸서 묶은 후 땅이나 바닷가 물찌지 않는 곳(장고도), 혹은 산.들이나 갯가에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처리 방식은 차령산맥 이북 지역인 서산, 당진, 홍성, 예산 등에서는 땅에 묻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차령산맥 이남 지역인 아산, 천원, 연기, 청양, 공주, 서천, 부여, 논산, 대덕, 금산 등에서는 불에 태우는 방법이 성하고 있으며, 물에 띄우는 방법은 육지 지역 즉 부여, 연기, 아산 등에서 몇 군데 행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그동안 문헌자료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태봉등록, 의궤 등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특히 조선시대에 발간한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등으로 대표되는 의학서, 『규합총서』, 『내훈』 등 조선시대 가정살림살이 등 문헌 기록도 주목됩니다. 실제 의서에는 태를 이빨로 자르거나 태를 불태우도록 기술하고 있

습니다. 의서 보급에 따라 풍속이 변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분석도 빼놓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② 태실관련 수호사찰과 문중, 마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조태실의 경우에 오덕사와 충화면 일대 전주이씨 집안(신성군)이 그 대상입니다. 오덕사는 복성군(1509-1533, 중종의 서자이자 장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원찰이자, 선조태실을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덕사에는 선조 어필(御筆)과 용포(龍袍)가 하사되었으며, 이를 보관하기 위해 어필각(御筆閣)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복성군의 봉사손인 신성군 가문에서는 오덕사를 관리하였으며,『태봉등록』등에는 신성군 가문에서 올린 등장(等狀, 청원서) 등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기에 충화면 일대 전주이씨 문중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숙종 태실의 경우에도 공주 태봉동에는 마을주민이 수호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나라에서 농기를 제작하여 하사하거나, 태봉 앞을 지나갈 때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등의 기록이 담긴 문서가 찾아지고 있습니다.

③ 태실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브랜드화와 함께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유산이 현대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남의 태실에 대한 책자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만화 등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상품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5

의회

태실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방향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과장
강 남 식

태실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방향

강남식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과장)

오늘 충청남도의회에서 개최하는 충남의 태실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의정토론회에서 참석하여 토론을 맡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실 문화유산의 관심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에서 관계전문가분들께서 태실과 세계유산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그 의미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기에, 발표문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우리 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①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그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족하기 위한 준비가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재의 지정, 지역주민의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수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나 기관이 중심이 되어 주도한다고 하여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른 후광효과 또한 기대와는 달리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방문객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의 등재는 공감과 협력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발표자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② 발표자께서는 태실 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태실, 태봉의 조성 및 이와 관련한 기록, 그 가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태실의 경우(가봉태실도 포함) 조성 당시의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원형의 형태를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발표회를 갖는 서산의 '명종대왕태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조건인 ‘진정성’과 ‘완정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봉태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태실 관련한 복원, 보수, 재현 등을 진행할 때, 의궤·안태등록 등의 기록을 근거로 보완을 하더라도 유형적 증거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방향, 범위 등에 대한 고려하신 것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③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번째 문턱이 잠정목록에 등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간도 상당히 필요하고, 현재 4개의 광역도(충남, 충북, 경기, 경북)와 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각 광역도의 연구 현황이나 진척 상황이 다른 만큼 이를 위한 조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기준으로 연구 방향 등의 변경이나 수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도에서 가장 시급하거나 꼭 준비되어야 할 연구 과제와 함께 고려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④ 태실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와 관련하여 연속유산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 이유가 지자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세계유산 등재기준과 관련하여 등재신청 시에는 1~6번 중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 가치와 속성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태실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리되겠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의정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초청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태실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해 연구 및 학술 사업에 대해 의회 및 관련 시군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충남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방향

Ⅰ. 충청남도 세계유산의 등재 현황

1 세계유산 등재 현황

○ 세계유산(4)

- 문화유산(3) : 백제역사유적지구('15, 공주·부여), 산사·한국의 산지승원('18, 마곡사), 한국의 서원('19, 돈암서원)
- 자연유산(1) : 한국의 갯벌('21, 서천갯벌)

○ 인류무형유산(2) : 한산 모시짜기('11), 당진 기지시줄다리기('15)

○ 세계기록유산(2) : 난중일기('13, 아산), 조선통신사 기록물('17)

○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 유산(1) : 태안유류피해기록물('22)

2 문화유산 등재 기준

○ **(백제역사유적지구)**

(Ⅱ)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

(Ⅲ)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서 백제의 역사, 불교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 성곽·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독특했던 백제의 건축기술,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사라져간 백제 문화와 역사의 뛰어난 증거.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Ⅱ) 오늘날까지 불교 출가자와 신자의 수행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승원 불교의 종교적 가치가 구현된 공간구성의 진정성을 보존하며 지속적으로 승가 공동체의 종교 활동이 이어져 온 성역으로서 특출한 증거
7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대승불교의 전통을 수용하여 창건된 이후 지금까지 승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선수행의 전통과 다양한 불교 의례 지속
석가신앙, 아미타신앙, 미륵신앙 등 다양한 불교 신앙이 공존하는 융합불교의 모습을 대표

(Ⅲ) 주변 자연을 경계로 삼아 산 안쪽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갖고 마당을 중심으로 예불, 수행, 생활 공간 등의 요소가 입지 특성에 따라 공간 구성의 유기적 연계를 이루는 복합 공간을 보여주는 유형
마당은 종교활동의 중심 공간이며 건축물이 배치되는 연결고리
산사는 개방적인 공간 구성을 보여주며, 사찰의 경내는 신청유산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확장
한국 불교의 개방적 특징은 불전과 수행 공간과 생활 시설들이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마당에서 잘 드러남

○ **(한국의 서원)**

(Ⅲ)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그 교육과 사회적 관습은 많은 부분 오늘날까지 지속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특출한 증거

Ⅱ. 태실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현황

1 사 업 대 상

○ **사업 대상 :** 충남 지역 위치한 태실 문화 유산 16개소

- 가봉태실 (7개소 : 태조,명종,선조,현종,숙종,헌종,순종)

※ 보물 : 서산 명종태실, 도지정 : 금산 태조·부여 선조태실·공주 숙종)

- 아기씨 태실 (9개소)

2 그 동안 추진 현황

○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광역 실무회의 진행(3회, 2022. 4.26, 8.19, 9.29.)

- 추진 및 협력 방안 등 논의(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 공동 참여), 광역 실무회 구성

○ 2023. 2. 6. 태실 세계유산화 광역 실무회의(3차) 참석

- 공동사업 추진(학술회의 광역도 각 30,000천원) 관련 협력 방안 등 협의 (출연기관 간 MOU 등)

○ 2023. 4. 21. 광역도(충남·경기·경북) 출연기관 간 MOU 체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 2023. 7. 12.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광역 실무회 참여

- 광역 실무회 : 충남·충북·경기·경북도 및 출연기관

3 향후 계획

○ 공동학술회의(2023. 10. 26. ~ 27,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 광역도 출연기관별 분담, 공동 추진 협의(*2023.9.5.회의 예정, 충북문화재연구원)

○ 2024. 충남지역 태실 관련 유산 기초조사 및 공동 학술회의

- 태(胎)문화 관련 기록, 구술채록, 유적 등 조사(보편적 가치 및 속성 추출)

4 도내 태실 현황

구분	명칭	태주	소재지	비고(지정현황)
가봉태실	금산 태조대왕 태실	태조	금산군 추부면	도 유형문화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명종	서산시 운산면	보물
	부여 선조대왕 태실(비)	선조	부여군 충화면	문화재자료 (부여 향토유산)
	예산 현종대왕 태실	현종	예산군 신양면	비지정
	공주 숙종대왕 태실(비)	숙종	공주시 이인면	문화재자료
	예산 헌종대왕 태실	헌종	예산군 덕산면	비지정
	홍성 순종대왕 태실	순종	홍성군 구항면	비지정
아기 태실	예산 연령군 태실	연령군	예산군 덕술면	비지정
	예산 화령옹주 태실	화령옹주	예산군 광시면	비지정
	금산 덕흥대원군 태실	덕흥대원군	금산군 추부면	비지정
	보령 명선공주 태실	명선공주	보령시 미산면	비지정
	부여 의혜공주 태실	의혜공주	부여군 규암면	부여 향토유적
	부여 명혜공주 태실	명혜공주	부여군 충화면	비지정
	부여 명안공주 태실	명안공주	부여군 충화면	비지정
	당진 화유옹주 태실	화유옹주	당진시 순성면	비지정
	예산 입침리 태실	미상	예산군 응봉면	비지정

붙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

단 계	시 기	주 체	내 용
1단계	-	시도지사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문화재청에 신청
2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3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4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5단계	-	문화재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6단계	-	문화재청	예비평가대상 선정(2027년 시범, 2028년 의무시행)
7단계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예비평가 신청서 제출(2027년 시범, 2028년 의무시행)
8단계	-	유네스코 자문기구	예비평가 실시(2027년 시범, 2028년 의무시행)
9단계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예비평가 결과 통보(2027년 시범, 2028년 의무시행)
10단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12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11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7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12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8월말까지	시도지사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문화재청에 제출
13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9월30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4단계	등재신청연도 2월1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5단계	등재신청연도 8~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16단계	등재신청연도 9~12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17단계	등재신청연도 익년4월경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에 통보
18단계	등재신청연도 익년6~7월경	세계유산 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memo

memo